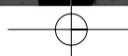




8

스포츠
내셔널리즘 시대



1

올림픽대회 메달 획득 실패

‘정변政變에 따라 춤추는 체육, 체육인.’

1960년대 우리 체육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자조自嘲 섞인 말이다. 한마디로 정치에 휘둘리는 체육계의 속성을 드러난 표현이었다, 한국전쟁 뒤 나라의 체계가 좀 잡히나 했더니 정치적 혼란이 온 사회를 휩쓸었다.

1960년 자유당 독재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결국 4·19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4·19 혁명의 파장은 정권의 거취와 맥을 같이하도록 체질화한 대한체육회에 바로 파급됐다. 몇 차례의 회장 선거에 실패한 대한체육회는 당시 민주당의 실세로 떠오른 이철승이 부회장으로 직무를 대행했다.

그는 1961년 1월 28일에서야 정식으로 대한체육회 회장에 선출된다.⁰⁰¹ 이전까지 이철승은 허정 과도정부의 처지를 고려해 회장직을 고사하고 부회장에 머

⁰⁰¹ 김광희, 2001, p399.

물며 실제로는 회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다. 당시 대한체육회 집행부는 제17회 로마 올림픽대회가 임박했음에도 정정政情 불안으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4·19 혁명의 혼란과 로마 올림픽대회

멜버른 올림픽대회와 도쿄 아시아경기대회를 거친 4년간 유망 선수 발굴은 물론 신인의 등장도 볼 수 없었지만 대한체육회는 메달 기대 종목인 마라톤만큼은 두 달간 합숙훈련을 시킬 정도로 신경을 썼다. 감독 최윤칠, 선수 이창훈·이상철·김연범 등으로 선수단을 꾸렸는데 당시로선 최선을 다한 인선이었다.

1960년 4·19혁명 당시 중앙대생이던 이창훈도 데모의 물결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옆에 서 있던 학생이 경찰 측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같은 해 5월 19일에 열린 로마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 마라톤 예선에 불참했다. 하지만 선발된 선수들의 기록이 이창훈의 종전 기록에 미치지 못하자 체육회는 추후 그를 선발했다.⁰⁰²

로마 올림픽대회에는 임원을 포함한 선수단 56명과 심판, 국회의원, 연구원 등 11명이 파견되었다. 참가 종목은 육상경기, 역도, 복싱, 레슬링, 사이클 등 9개였다. 이 가운데 체조와 다이빙은 처음 참가하는 종목이었다.

그러나 출발 때부터 이미 상위 입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4·19혁명으로 체육행정엔 오랜 공백이 지속됐고 선수 선발도 늦었다. 더구나 정국 혼란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도 못했다.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던 시절,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는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 뿐이었다.

⁰⁰² 정희준, 2009, p73.



▲ 1960년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대회 입장식에서 한국 선수단의 모습.
 ◀ 1960년 해머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송교식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최종 선발전이 1960년 5월 14, 15일 이틀간 열려 해머던지기에서 송교식이 57m 60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60년 7월에는 제5회 전국남녀중고등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와 10월 제2회 서울시남녀중고등학교대항육상경기 겸 선수권대회, 제9회 서울시학도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특히 서울시교육위원회 주최의 서울시학도체육대회는 육상경기·축구·핸드볼 및 연식정구 등 4종목이 진행되는데 대회 마지막 날 배재의 임호근이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15m 0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0월



‘맨발의 영웅’ 비킬라 아베베.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에 이어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2연패를 하며 전설의 마라토너가 됐다.

제41회 전국체육대회 3000m 장애물레이스에서 이복식이 9분 34초 4, 정교모가 9분 37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나란히 1,2위를 했다.

그해 세계무대에서는 남자 100m 세계신기록이 작성되었다. 1960년 6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7개국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서독의 알민 하리 선수가 10초 F로 세계신기록을 세웠고, 7월에는 캐나다의 해리 제롬이 세계타이기록을 세웠다. 9월 로마 올림픽대회 남자 400m에서는 미국의 오티스 데이비스가 44초 9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1960년 8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대회는 사상 처음 개최식을 비롯한 주요 경기 장면이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중계됐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장애인을림픽대회에서도 금메달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에서 만난 손기정(오른쪽)과 아베베.

올림픽대회 역사에서 최고의 투혼을 보인 선수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영웅 비킬라 아베베(1932~ 1973)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에서 뜨거운 아스팔트를 시종일관 맨발로 달려 2시간 15분 16초 2의 세계 신기록으로 첫 번째 금메달을 땀다. 당시 그는 28세로 에티오피아 셀라시에 황제의 근위병이었다.

아베베는 로마 올림픽대회 이후 일등병에서 단번에 하사로 진급했다. 그는 4년 뒤 열린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나왔

고 계급은 상사로 진급해 있었다. 아베베는 그해 9월 16일 맹장수술을 받고 10일 만인 9월 27일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된 10월 21일 도쿄 올림픽 마라톤에서 놀랍게도 2시간 12분 11초 2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사상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을 2연패했다. 하지만 시상대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가가 울리지 않고 대신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주최 측에서 아베베의 우승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하지 않은 탓이었다. 어쨌든 그의 계급은 곧바로 상사에서 중위로 올라갔다. 아베베는 4년 뒤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에도 참가했지만 천하의 그도 나이는 어쩔 수 없었다. 17km 지점에서 레이스를 접고 세계 마라톤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아베베는 1969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그는 하반신 감각을 잃어 마라톤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엔 상체를 이용해 활쏘기 훈련을 했다. 그는 손과 팔의 힘을 강화하는 체조를 해 가며 장애인올림픽 양궁 종목에 참가했다. 아베베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땀다. 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가 장애인올림픽대회까지 제패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003

다. 또한 전광판이 등장해 경기 진행 과정이 기록됐고 모든 경기 결과는 전자장비에 수록됐다. 개막식에 이어 각종 경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기마다 패전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강세를 보여온 역도도 침몰했다.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두 달 동안 합숙훈련을 할 만큼 지원을 받은 유망 종목 마라톤만 남았다. 당초 후보 선수를 포함해 4명이 로마에 입성했지만 경기에는 이창훈, 이상철, 김연범 등 3명이 참가했다.

오후 늦게 로마시청을 스타트한 69명의 선수들은 옛 기사들이 달리던 유서 깊은 아피아 길을 따라 달렸다. 경기 도중 해가 저 어두워졌지만 가로등 대신 햇불을 밝혀 옛 로마시대를 되살린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김연범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했으나 13km 지점을 지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추월당하자 당황해하면서 오버페이스를 했다. 이 바람에 그는 30km 지점에서 기권하고 말았다. 4년 전 멜버른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고교생으로 4위에 올랐던 이창훈은 12km를 남기고 54위에서부터 맹추격을 벌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던지 2시간 25분 22초로 20위에 그쳤다. 우승자는 ‘맨발의 마라토너’인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그는 2시간 15분 16초의 놀라운 세계 최고기록을 수립했다.

결국 한국은 올림픽대회 참가 사상 처음으로 ‘노메달’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최윤철 마라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참패의 원인을 실력 부족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학교체육이 사라져 마라톤 인재를 발굴, 육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중·고교에 육상경기를 필수 종목으로 편성해 선수를 길러내야 한다고 당국에 건의했다.

003 ‘올림픽 금메달 얽힌 비화’, 신동아 2000년 10월호.

여자 중·단거리 한명희는 달린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군사정변이 발생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이철승은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나고 체육회는 군사정부에 의한 각종 단체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다. 군사정부의 임명에 따라 당시 해병대 소장이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이던 김동하가 대한체육회 회장에 올랐다.

1961년 7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제8대 권태하 회장을 중심으로 김관습·손기정 부회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내분과 경기력 부진 등의 이유로 연맹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고 대한체육회에 의해 임시체제로 운영되다 1962년 2월 육군 출신의 유흥수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1961년과 1962년에는 한명희와 장숙이 여자 중단거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기록 단축에 불을 붙였다. 1961년 8월 새로 마련된 시립효창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제1회 도대항남녀중고등학생육상경기대회, 제15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제4회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1차 예선대회가 열렸으나 새로운 기록이 나오지 않다가 9월 23일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서울 예선 겸 서울시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드디어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400m에서 한명희가 1분 4초 9(종전기록 1분 7초 2)를 끊은 것. 그러나 이 기록은 10월 제4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다시 경신되었다. 이번에는 여자 400m에서 이학자가 1분 3초를 끊었고 한명희가 1분 3초 7(종전기록 1분 4초 9)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나란히 1,2위를 한 것. 이어 여자 4×100m 릴레이에서 장숙·박희숙·김채룡·구삼순이 땀 서울팀이 53초 1(종전기록 53초 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62년 1월 국가대표 육상경기팀이 부산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중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여자 800m에서 한명희가 2분 33초(종전기록 2분 33초 4)를 끊었고, 해머던지기에서 임동실이 57m(종전기록 55m 2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어 한명희는 3월 육상경기특수종목기록회 여자 800m에서 2분 28초를 끊으며 자신의 기록을 5초 이상 앞당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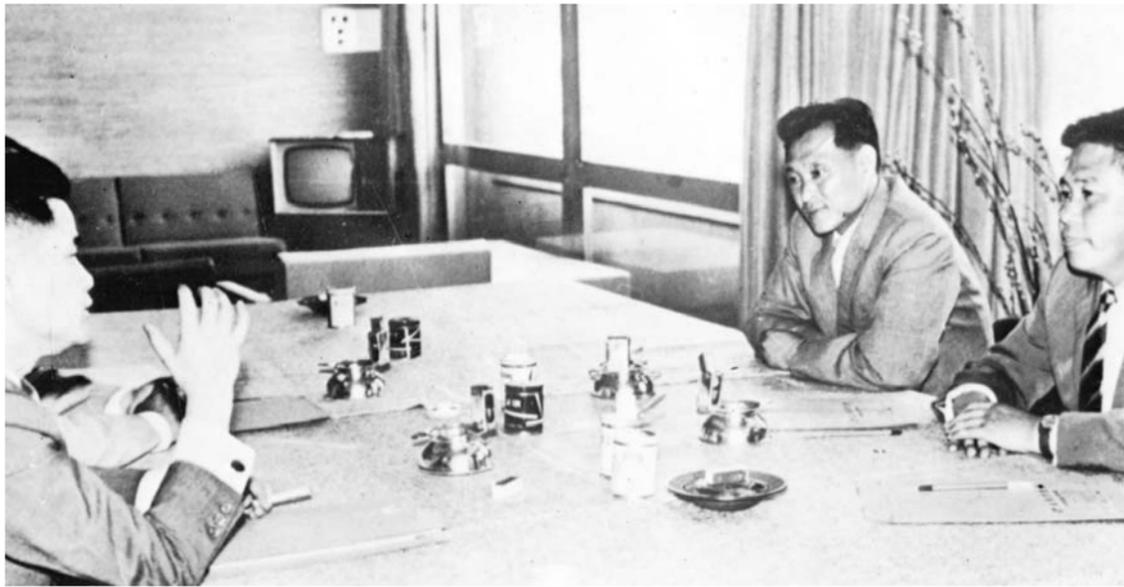


왼쪽부터 1962년 800m에서 2분 25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한명희, 1962년 진명여고 시절 단거리 선수로 활약한 장숙, 1960년대 높이뛰기 선수로 활약한 안국희, 1962년 여자 80m 허들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김춘자, 여자 4x100m 릴레이에서 1961, 1962년 연거푸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구삼순.

4월 제3회 서울시남녀중고교학년별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도 여자 선수들이 신기록을 작성에 나섰다. 여자 800m에서 한명희가 다시 2분 25초로 한국기록을 3초 앞당겼고, 200m에서도 26초 5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200m에서 2위를 한 장숙도 27초 2(종전기록 27초 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높이뛰기에서 안국희는 1m 46으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5월 제16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제4회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제2차 선발대회에서는 여자 종목에서만 3개의 한국신기록과 한국타이기록이 나왔다. 여자 800m에서 한명희가 2분 22초 9(종전기록 2분 25초 00), 여자 200m에서 장숙이 26초 4(종전기록 26초 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장숙과 박희숙은 여자 100m에서 12초 8로 광복 전 정임숙이 보유한 12초 8의 타이기록을 세웠다. 여자 80m 허들에서 김춘자가 12초 9(종전기록 13초 00)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6월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최종선발대회에서는 한국신기록 6개가 쏟아졌다. 여자 멀리뛰기에서는 김춘자 5m 40, 한죽희 5m 35(종전기록 5m 20)로 1,2위 모두 한국신기록이었고, 김춘자는 여자 80m 허들에서도 12초 7(종전기록 12



▲ 1963년 도쿄 올림픽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연락자의 회담 모습. 남북은 스위스 로잔과 홍콩 등에서 세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북한의 육상경기의 영웅 신금단의 역주 모습, 그는 1963년 가네포대회 육상 3관왕에 오른 세계적인 스프린터였다.

초 9)로 한국신기록으로 우승을 했다. 여자 4×100m 릴레이에서는 진명여고팀 52초 5, 이화여고팀 53초(중전기록 53초 1)로 1,2위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마지막 날에는 한명희가 200m에서 26초 3(중전기록 26초 4)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7월에는 북한 선수 신금단이 400m에서 53초로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이 단연 화제였다. 이후로도 신금단 선수의 활약은 계속되었다.

1962년 10월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마라톤을 비롯 4개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마라톤에서 김연범이 2시간 23분 56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웠고, 여자 400m에서 이학자 1분 1초 7(중전기록 1분 2초 00), 여자 4×100m 릴레이에서 서울팀(구삼순·한죽희·김미자·이학자)이 52초 7(중전기록 53초 2), 여자 창던지기에서 김혜자가 31m 65(중전기록 31m 37)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도쿄 올림픽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결렬

1962년 제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하지만 대회 개막 직전 주최국 인도네시아는 아시아경기연맹 가맹국인 이스라엘과 자유중국(대만)에 정치적인 이유로 ID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이들 국가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즉각 두 나라가 참가하지 않으면 이 대회 육상경기 종목을 불법화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국가는 제명 처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 대회 육상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역도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후 196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8회 올림픽대회는 한국으로선 5·16군사정변 이후 처음 맞는 올림픽대회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올림픽대회였다. 특히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해 최초의 남북대결 성격을 띠었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열리는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

을 받은 대회였다.

IOC는 1957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제54차 IOC 총회를 열어 북한 올림픽위원회를 승인하면서 올림픽대회 참가는 KOC의 동의를 얻어 단일팀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에는 한국이 단독으로 참가했다.

1963년 1월 제59차 IOC 총회의 권유로 도쿄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다. KOC 대표로 김진구, 손기정, 민용식, 황엽, 재미동포 정월터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김용수를 단장으로 김기수, 김화영, 양성욱, 김용구 등이 나왔다.

남북한은 제1차 회담에서 국가는 아리랑으로 하고 임원과 선수 선발은 독일의 전례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어 5월과 7월 홍콩에서 2차, 3차 회담을 잇달아 열어 견해 차를 좁히려 했지만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IOC는 이에 따라 1963년 8월 남북한이 별개의 팀으로 도쿄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도록 결정했다.

세계신기록 수립한 북한의 달리기 영웅

북한은 이로써 올림픽대회 무대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북한은 개막 5일 전인 1964년 10월 5일 선수단 1진이 만경봉호 편으로 니가타 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10월 8일 돌연 올림픽대회 참가를 보이콧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보이콧 명분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신 북한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당시 국제육상경기연맹과 국제수영연맹,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은 모두 1963년 가네포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신흥국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선수의 참가를 제한했다. 가네포는 신흥국경기연맹의 주최로 신흥세력 국가들이 벌이는 국제적인 스포츠대회

였다.

신흥국경기연맹은 1962년 8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경기대회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과 대만의 참가를 거부해 IOC에서 제명을 당하자 이에 맞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12개국으로 결성되었다. 신흥국경기대회는 4년마다 열고 올림픽대회 정신에 바탕을 두고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표방했다. 제1회 대회는 1963년 11월 10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으나 정치적인 색채가 짙었다.

51개국에서 2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지만 전반적인 기록은 저조했다. 신흥국경기연맹 본부는 자카르타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공산 세력의 쇠퇴와 중국의 내정변혁으로 이 대회는 사실상 제1회 대회가 열린 후 소멸됐다.⁰⁰⁴

어쨌든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이 가네포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해 이후 12개월간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네포대회 육상경기 3관왕에 오른 신금단을 비롯한 북한 선수 6명과 인도네시아 선수 11명 등은 올림픽대회 참가가 불가능해졌다. 북한은 여자 육상경기에서 금메달을 기대한 신금단이 뛰지 못할 경우 올림픽대회 참가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계산에 따라 국호 문제를 이유로 철수하고 말았다.

사실 광복 이후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의 세계적 운동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신금단을 꼽아야 할 것이다. 그는 1958년 북한 건국 10주년 기념대회에서 100m와 800m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해 불가리아에서 열린 국제대회 400m와 800m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신금단은 이어 1960년 모스크바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자

신의 주 종목인 800m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고, 2년 뒤 400m에서도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는 이후 11차례에 걸쳐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1963년 가네포에선 200m, 400m, 800m에서 우승해 3관왕에 올랐다. 400m의 51초 4와 800m의 1분 59초 1은 세계신기록이었다. 신금단은 바로 이 대회에 참가한 전력 때문에 이듬해 열린 도쿄 올림픽대회 참가가 금지됐다.⁰⁰⁵

당시 절정의 기량에 오른 그가 만일 도쿄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면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됐을지도 모른다. 사실 남한 정부의 골칫거리는 여기에 있었다. 올림픽대회에서 처음으로 남북대결을 벌여야 할 판인데, 신금단이 참가해 최고 인기 종목인 육상경기에서 금메달을 두 개, 세 개 목에 걸고 최고 스타가 돼 버리면 이처럼 난감한 일이 없을 것이었다.

특히 재일동포들의 양대 조직인 조총련계와 거류민단계의 세력 판도는 당시 7 대 3 정도로 조총련이 압도하고 있었는데, 신금단 덕에 북한이 남한을 누르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판이었다. 그래서 한국이 '올림픽 광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선수단을 대규모로 구성한 것은 무엇보다 스포츠 외교나 경기 면에서 북한에 뒤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올림픽대회 개최지가 가까워 적은 비용으로도 세계 수준의 선수들과 겨뤄 볼 기회를 갖게 돼 경기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한국은 선수 165명, 임원 59명을 포함해 올림픽대회 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6개 종목, 224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참가 종목은 예상 성적과 참가 목적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됐다.

⁰⁰⁵ 정희준, 2009, p78~79.



왼쪽부터 여자 멀리뛰기에서 활약한 한죽희, 여자 높이뛰기의 박면숙, 남자 포환던지기 임호근, 여자 창던지기의 이혜자. 모두 1964년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선수들이다.

이에 따르면 입상 가능 종목은 복싱, 레슬링, 유도, 역도 등 4개, 입선 가능 종목은 마라톤 1개였다. 나머지는 예선 통과 종목(축구, 배구, 승마, 수영, 농구 등)과 우수 종목(사격, 사이클), 정책 종목(육상경기, 체조, 펜싱, 조정, 근대5종 등)이었다. 대규모 선수단을 꾸리는 한편 장장 530일에 걸친 강화훈련도 전개했다.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 참가 준비 총력전

대한체육회는 도쿄 올림픽대회 개막을 1년 9개월 앞둔 1963년 1월 임원 63명, 선수 323명으로 '선수강화훈련단'을 발족하고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1963년 초 대한체육회는 도쿄 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상설기관인 '우수선수강화훈련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실 도쿄 올림픽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육상경기의 현실은 암담했다. 1963년 4월 30일 국제육상경기연맹이 표준기록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들의 기록은 대부분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세계 육상경기 기록은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 이후 대폭 상향 조정돼 남자 100m에서 10초 3의 기록을 낸 선수만 41명에 달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963년도 목표기록'

을 세우고 맹훈련에 들어갔으나, 도쿄 올림픽대회 표준기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자 멀리뛰기 한 종목뿐이었다.

6월 제17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 및 도쿄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제1차 선발대회에서 7개의 한국신기록과 2개의 한국타이기록이 나왔다. 사실 한국신기록보다 남자 100m에서 정기선이 10초 5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운 데 더 많은 시선이 모아졌다. 도쿄 올림픽대회 기준기록은 10초 4였다.

한국신기록은 모두 여자 종목에서 작성되었다. 200m 박희숙 26초 F(종전기록 26초 3), 400m 한명희 59초 6(종전기록 61초 5), 4×100m 릴레이 한전팀(구삼순·한죽희·이학자·송양자) 50초 9(종전기록 52초 5), 멀리뛰기 한죽희 5m 45(종전기록 5m 40), 5종경기 1위 이학자 2549점과 2위 이영희까지 한국신기록이었다.

6월 30일 제18회 전국남녀중고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 여고부 4×100m 릴레이에서 이화여고팀이 51초 9(종전기록 52초 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마지막 날 여자 높이뛰기의 박금숙이 1m 48(종전기록 1m 47)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8월 우수선수 육상경기 비공식기록회에서 한명희가 200m에서 25초 9(종전기록 26초 00), 400m 57초 7(종전기록 59초 6)로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9월 제11회 서울시체육대회 겸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예선대회에서 한명희는 200m 25초 4, 400m 57초 2(종전기록 59초 6)로 2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0월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400m에서 한명희가 2분 21초 6, 남자 포환 던지기에서 임호근이 14m(종전기록 13m 89)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어진 공인기록회 마라톤에서 이상훈이 2시간 21분 54초(종전기록 2시간 23분 56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해머던지기에서 임동실이 58m 47(종전기록 57m 60), 원반던지기에서 김병기가 46m 20(종전기록 45m 78), 여자 800m에서 한명희가 2분 14초 1(종전기록 2분 21초 5)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64년 제18회 도쿄 올림픽대회 포스터.

도쿄 올림픽대회로 가는 길

1963년 대한육상경기연맹 유흥수 회장의 갑자스러운 사임으로 2개월의 공백 끝에 8월 손기정이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제 도쿄 올림픽대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1964년 5월 도쿄 올림픽대회 제3차선발전에서 6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1964년 여자 80m 허들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김득실(왼쪽).
1964년 여자 100m에서 12초 5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송양자.

여자 100m에서 박희숙이 12초 6(종전기록 12초 8), 여자 400m 한명희 57초 1(종전기록 57초 2), 남자 원반던지기 김병기 48m 42(종전기록 46m 20), 남자 포환던지기 임호근 14m 23(종전기록 14m), 여자 창던지기 이해자 34m 91(종전기록 33m 65), 여자 멀리뛰기 한죽희 5m 55(종전기록 5m 45) 등이다. 이해자는 서울시남녀중고학년별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35m 90(종전기록 34m 91)로 또다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6월 제18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 및 제18회 도쿄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대회에서 6개의 한국신기록과 4개의 한국타이기록이 나와 한국 육상경기는 한껏 고무되었다. 특히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수권이 61m 81(종전기록 58m 80)으로 34년 만에 유약한의 기록 58m 47을 깨뜨리고 한국신기록을 세운 것이 큰 소득이었다. 이학자는 여자 5종경기에서 3855점(종전기록 3589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80m 허들에서도 12초 5(종전기록 12초 7)로 신기록을 세웠다. 기대했던 남자 100m의 정기선은 10초 5로 한국타이기록에 머물렀다. 남자 1500m에서는 정교모가 3분 55초 00(종전기록 3분 56초 2), 남자 해머던지기 임동실 61m 03(종전기록 58m 49), 남자 포환던지기 임호근 14m 55(종

전기록 14m 23)도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그 밖에 한국타이기록은 남자 4×100m 릴레이 석탄공사팀 42초 7, 여자 100m 송양자 12초 6 등이다.

그러나 7월에 열린 제19회 전국중고대항육상경기대회 겸 도쿄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기록회에서는 한 개의 한국신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8월 우수선수육상경기기록회에서 4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으나 여전히 올림픽 표준기록에 미치지 못했다.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수권 66m 90(종전기록 61m 81), 여자 창던지기 이해자 37m 80(종전기록 37m 20), 멀리뛰기 한죽희 5m 75(종전기록 5m 55), 5종경기 이학자 3930점(종전기록 3588점) 등이 한국신기록이다. 9월 제13회 서울시학도체육대회 여자 높이뛰기에서 이명희가 1m 49(종전기록 1m 46)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0월 제3회 전국남녀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도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원반던지기의 전한길이 45m 45(종전기록 41m 07)를 기록한 것. 1964년 4월 손기정이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취임되었다.

그런데 막상 도쿄 올림픽대회의 뚜껑이 열리자 결과는 참담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가 참가한 16개 종목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육상경기와 축구의 참패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특히 육상경기에는 개별 종목으로는 최대 인원인 19명(임원 3명, 선수 16명)이 참가했으나, 마라톤을 제외한 각 종목에서 단 1명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 미국, 소련, 호주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선수단을 보냈지만 종합성적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27위에 그쳤다.

결국 우리 엘리트 스포츠의 참담한 위상을 확인한 올림픽대회였다. 또한 우리 스포츠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기 어렵다는 충격과 반성을 안겨 주었다.

“아바이 잘 가요” 신문준·신금단 부녀 상봉



신금단과 아버지 신문준이 1964년 10월 9일 도쿄에서 남북 관계자들에 둘러싸인 채 극적인 상봉을 하고 있다.

1964년 10월 5일 일본에 입국한 북한 선수단이 결국 도쿄 올림픽대회 불참을 결정하고 개막 하루 전인 9일 철수하면서 신금단의 올림픽 신화는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신금단 부녀의 극적이었지만 너무도 짧았던 7분간의 상봉이었다.

신금단은 12세 때이던 1951년 1·4 후퇴 때 함경남도 이원에서 아버지와 이별

해 북한에 남고, 아버지 신문준은 남한에서 살았다. 일본에 입국한 이틀 뒤 신금단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조선에 아버지가 계신다.”며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 최고의 스타가 된 딸의 소식을 듣고 딸을 만날 기회를 찾던 신문준은 다음 날 도쿄로 날아갔다.

신문준의 발 빠른 행동은 중앙정보부가 나선 덕분이었다. 북한의 도쿄 올림픽대회 참가는 중앙정보부에 새로운 일거리였고 신금단은 단연 주목의 대상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정보부 직원과 한국 선수단 후원회장인 재일동포 이유천에게 신문준과 동행해 일본으로 가도록 했다. 중앙정보부는 이참에 아버지 신문준을 내세워 딸 신금단을 남쪽에 귀순시킨다는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⁰⁰⁶ 이유천이 무라이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통해 북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만남은 쉽지 않았다. 10월 10일 개막하는 올림픽대회에 불참기로 하고 철수하는 북한 선수단은 9일 오후 5시 50분 우에노 역에서 북한으로 돌아갈 배가 기다리고 있는 니가타로 출발하게 돼 있었다.

남북 양측은 그날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만남의 장소로 남측은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북측은 도쿄의 조선회관을 고집했다. 돌발 사태를 감안해야 했던 북한으로선 그들의 통제력이 미치는 조총련계 공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니가타행 기차 출발 시간을 한 시간 앞둔 오후 4시 45분, 양측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남은 것은 마흔아홉 아버지와 스물여덟 딸의 14년 만의 만남. 하지만 번갯불에 콩 볶듯 순식간에 끝내야 할 상황이었다.

“동무, 서울에서 아바이가 왔으니 따라오시오.”

신금단은 조선회관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남과 북이 갈린 이후 첫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둘은 속절없이 눈물만 흘렸다. 신문준은 가족을

006 정희준, 2009, p79~81.

한국 육상경기의 중흥과 기록 향상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신금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나도 잘 살고 있다.”고 답했다. 잠시 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바라만 보는 이들을 조총련계 관계자들이 떼어 놓았다. 단 7분간의 만남.

“아바이, 잘 가요.”

신금단의 외마디 비명 같은 이 말은 곧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다.

1986년 북한의 <로동신문>은 신금단이 압록강체육선수단의 육상지도원(코치)로 근무하고 있다고 근황을 알린 뒤, 그가 각종 국제경기에서 28개의 금메달을 땀고, 11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신금단은 이듬해 1987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제7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989년 뉴델리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한대표팀 코치로 참석했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멀리뛰기 선수라는 사실을 한국 취재진에 밝히기도 했다. 신금단의 아버지 신문준 씨는 1983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1965년 3월 동아마라톤에서 이명정이 2시간 21분 2초 6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2위 유명중, 3위 이상훈과 함께 보스턴마라톤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두 달 뒤 이명정의 기록은 김봉래에 의해 깨졌다. 5월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제1차 마라톤 선수선발대회에서 김봉래는 2시간 20분 19초 2로 이명정의 기록을 1분 2초 4 단축하며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5월 초 서울시중고학년별대항육상경기대회 여자 높이뛰기에서 강선옥이 1m 49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이 기록은 며칠 못가 깨졌다. 얼마 후 열린 제19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6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는데 강선옥이 1m 50으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한 것. 그 밖에 여자부에서는 100m 송양자 12초 5(중전기록 12초 6), 80m 허들 김득실 12초 2(중전기록 12초 5)가 한국신기록이었다. 또 남자 10종경기에서만 3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는데 1위 이정옥 5445점 외에 2위 김용덕, 3위 지정웅까지가 모두 신기록이었다. 김득실은 5월에 열린 제3회 부산시종합체육대회 80m 허들에서도 12초 2(중전기록 12초 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6월 전국중고대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는 12초 2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 여고생 선수로 1965년 한 해 동안 여자 높이뛰기 한국신기록을 여러 차례 다시 쓴 강선옥.
▶ 남자 10종경기에서 이정욱, 지정욱과 함께 치열한 기록 경쟁을 벌인 한국신기록을 세운 김용덕.

1965년 10월 제4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26년 만에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경남 대표로 나온 홍상표가 3m 86을 뛰어 조용위가 세운 한국 기록 3m 70을 경신한 것. 여자 80m 허들에서 김득실이 12초 F(중전기록 12초 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열린 육상경기공인기록회에서 여자부 종목에서만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창던지기의 이해자는 38m 88(중전기록 38m 40), 높이뛰기의 강선옥은 1m 52(중전기록 1m 51)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녀 100m 동반 한국신기록이 나온다

1966년 1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제11대 회장으로 국회의원인 강상욱이 취임했다. 1966년 12월에 열리는 태국 방콕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한국은 종합 2위를 목표로 수영과 육상경기 종목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한국 육상경기 기록은 여자 중거리의 한명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이어서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요원했다. 그러나 그해 한국 스포츠계를 흥분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100m에서 남녀 동반 한국신기록이 수립된 것이다.

1966년 4월 춘계육상경기공인기록회에서는 4개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이 나



◀ 1966년 남자 100m에서 10초 3의 한국신기록을 세운 정기선.
▶ 1966년 여자 100m에서 12초 4, 12초 3으로 연거푸 한국신기록을 세운 정순남.

왔다. 여자 원반던지기의 박영숙은 40m 23(중전기록 39m 75)을 던져 19년 만에 40m의 벽을 돌파했고, 창던지기의 이해자는 43m 44(중전기록 38m 88)로 거리를 4m 56이나 늘리면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자부에서는 창던지기의 박수권이 68m 7(중전기록 66m 90), 10종경기의 김용덕이 5517점(중전기록 5445점)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4월 16일 광복 후 처음으로 한일대항육상경기대회가 효창경기장에서 열렸다. 여자 원반던지기의 박영숙은 40m 47로 며칠 전 공인기록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43m 23을 24cm 경신하는 데 성공했다.

6월 제20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한국대표 3차 선발전 남자 100m에서 석탄공사의 정기선이 10초 4를 기록하며, 1939년 당시 김유택이 일본에서 세운 10초 5를 27년 만에 넘어섰다. 정기선은 1963년 10초 5의 한국타이기록을 세워 24년 만의 기록으로 화제를 모았고 곧 100m에서 한국신기록이 수립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게 했으나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다. 그리고 1966년 초 이미 31세에 접어들어 은퇴설이 도는 와중에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여자 100m에서는 조대부여중의 정순남도 12초 4(중전기록 12초 5)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다. 특히 여자부에서는 2위 김채룡, 3위 황정자가 모두 한국타이기록이었다. 중학교 3학년인 정순남은 조대부중에 진학한 뒤 전남학도



1960년대 중반 박영숙(왼쪽)과 한동시는 원반던지기 선수로 활약하며 한국기록 경신을 이끌었다.

대회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에 1초씩 기록을 단축해오다 드디어 한국신기록을 작성하기에 이른 것. 그 밖에 여자 400m에서 한명희가 56초 9(종전기록 57초 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20km 경보에서 백광용이 1시간 47분 17초 2(종전기록 1시간 57분 51초 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2위 배창용, 3위 정명기까지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또 6월 공인기록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홍상표가 3m 90(종전기록 3m 89), 여자 800m에서 한명희가 2분 14초 F(종전기록 2분 14초 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80m 허들의 김득실은 11초 9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1966년 8월 제14회 서울시체육대회 겸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예선 여자 80m 허들에서 박성희가 11초 7로 한 달여 전 김득실이 세운 한국기록을 0.1초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8월에 열린 공인기록회에서는 여자 원반던지기의 박영숙 41m 39, 한동시 41m 2(종전기록 40m 47)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고, 4×100m 릴레이에서는 남녀 동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송양자·이정심·정순남·황정자 조는 49초 8(종전기록 50초 1), 김호철·정기선·김경선·김완식 조는 42초 5(종전기록 42초 7)를 찍었다. 또 여자 80m 허들에서 김득실이 11초 8(종전기록 11초 9)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9월에 열린 공인기록회 겸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선발대회에서도 9개의



1966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400m에서 한명희가 2위를 한 뒤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한국신기록과 1개의 한국타이기록이 나왔다. 특히 남녀 100m에서 3개월 만에 정기선과 정순남이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정기선은 10초 3(종전기록 10초 4), 정순남은 12초 3(종전기록 12초 4)를 기록했다. 남자 100m에서 김호철은 10초 4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여자부에서 400m 한명희 56초 8(종전기록 56초 9), 800m 김득실 11초 4(종전기록 11초 7), 4×100m 릴레이에서 정순남·송양자·이정심·김채룡 조 48초 9(종전기록 49초 8)가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박영숙이 41m 39, 한동시가 41m 2(종전기록 40m 47)로 2개

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부에서는 장대높이뛰기 홍상표 4m 05(종전기록 3m 90), 4×100m 릴레이 김경성·정기선·김완식·김호철팀 42초 1(종전기록 42초 7), 1만m 안장평 30분 34초 F(종전기록 30분 43초 F), 10종경기 김용덕 5855점(종전기록 5744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추가했다.

1966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 종목에서 첫 메달은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나왔다. 한동시는 41m 8로 국내기록보다 5cm를 더 던져 1위 필리핀, 2위 일본에 이어 동메달을 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였던 한명희는 여자 400m에서 57초 5로 아쉬운 은메달을 따고, 800m에서는 5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한명희는 이듬해 3월 선수 생활을 마쳤다.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한동시가 41m 8로 동메달을 따고,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홍상표가 4m 40으로 대회신기록이자 한국신기록(종전기록 4m 5)을 세우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 밖에 여자 100m에 참가한 송양자도 12초 9의 기록으로 7위에 머물렀고, 남자 5000m에서 이상훈이 4위, 안장평이 5위를 한 데 이어 1만m에서도 이상훈 4위, 안장평 6위로 간발의 차이로 메달을 놓쳤다. 다행히 마라톤에서 이상훈이 방콕의 무더위와 싸우며 2시간 40분 56초 2로 3위에 입상했다.

1966년 12월 열린 제5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2개를 포함해 모두 51개의 메달을 따내 이 대회 참가 사상 가장 좋은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전체 14개 종목 가운데 40명이라는 가장 많은 선수를 참가시킨 육상경기에서는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의 저조한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여자 400m에서 한명희가 은메달을 따냈고, 홍상표가 장대높이뛰기에서, 이상훈은 마라톤에서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 1960년대 후반 '넘으면 한국신기록'이라 할 만큼 맹활약을 한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
- ▶ 1960년대 후반 백옥자의 등장 이전 한국 여자 포환던지기 한국기록 보유자였던 천순임.

장대높이뛰기 홍상표의 약진

1967년 1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강상욱 회장이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의 성적 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연맹은 후임 회장 선임 문제로 혼란을 겪다 민관식 대한체육회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5월 전국남녀대학대학 겸 도쿄 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선수 선발대회에서 여자 원반던지기의 박영숙과 한동시가 동시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박영숙 43m 04, 한동시 42m 77(종전기록 41m 39)이었다. 그러나 이후 좀처럼 기록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기록은커녕 아시아기록과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아서 국내 육상경기계는 우울한 한해를 보내야 했다.

이 무렵 한국이 1970년 열릴 예정인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권을 반납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육상경기의 메달 획득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다, 7월 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선수 선발을 위한 공인기록회에서 한국신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여자 100m 정순남이 12초 3의 한국타이기록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기록이 부진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육상경기와 수영 종목은 아예 선수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회에 임박해 해머던지기의 구인태, 10종경기의 정복송 등 재일동포 선수와 남자 장거리의 박봉근, 여자 단거리의 황정자 등 4명을 파견했으나 결과적으로 남자 1

만m에서 박봉근이 31분 57초 2로 10위를 했고, 여자 100m에서 황정자는 예선 탈락을 했다.

1967년 10월 제48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종목에서 첫 한국신기록은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나왔다. 남자 장대높이뛰기 국내 1인자인 홍상표가 4m 42를 넘어 1966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세운 한국기록 4m 40을 경신했다. 또 남자 3000m 장애물에서 윤관수가 9분 33초 F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결국 이 2개의 한국신기록이 육상경기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여자 포환던지기 백옥자 시대 열리다

1968년은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해로 육상경기 종목의 기록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1월 초 문교부는 육상경기 강화 8개 방안을 마련해 체육회를 비롯해 학교체육회 전 교육기관 등에 시달렸다. 이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육상재건 운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각급학교가 의무적으로 연간 2회의 교내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육상경기 특기자를 우선적으로 뽑도록 하며 기업 등에 육상경기부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대한육상경기연맹도 1월 정식으로 민관식이 제12대 회장에 취임하고 새 집행부가 꾸러지면서 '1970년을 육상경기 정상의 해'로 정하고 선수 발굴과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1968년 4월 25일 공인기록회에서는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천순임이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3m 94(중전기록 12m 81), 원반던지기에서 43m 19(중전기록 43m 4)로 2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체육계는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백옥자라는 신인의 등장에 주목했다. 이 대회에서 인천 박문여고생 백옥자는 대학생인 천순임에 밀려 2위를 했지만 포환던지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3m 75의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이후 '아시아의 마녀'로 등극하기까지 거듭 한국신기록



1968년 남자 5000m와 1만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명정. 1964년 17세에 동아마라톤에 참가해 노장 이창훈에 이어 2위를 했고, 1965년에는 2시간 21분 2초의 한국최고기록으로 1위를 했다.

경신했다. 또 여자 높이뛰기에서 강선옥이 1m 53(중전기록 1m 52),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수권이 70m(중전기록 68m 7)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5월 제22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 2차대회에서도 5개의 한국신기록 수립되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도 4m 43(중전기록 4m 42)을 넘으며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남자 1만m에서는 김정치 30분 16초 9, 이명정 30분 26초 1, 김봉래 30분 31초 9(중전기록 30분 34초)로 한꺼번에 3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이명정은 1만m 이어 5000m에서도 14분 40초 6(중전기록 14분 41초 8)로 이 종목에서 10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6월 공인기록회 겸 전국남녀고교선수권대회에서는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창던지기의 이복순 46m 56(중전기록 43m 4), 여자 원반던지기의 한동시 44m 51(중전기록 43m 23), 여자 포환던지기 백옥자 14m 10(중전기록 14m 2), 남자 5000m 이명정 14분 40초 5(중전기록 14분 40초 6) 등이다.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를 코 앞에 두고 열린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첫날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홍상표가 4m 45를 뛰어넘어 지난해에 이어 첫 체전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포환던지기의 백옥자는 14m 75를 던져 자신이 세운 중전기록 14m 10을 깨고 한국신기록이자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했으나 공인을 받지 못했다. 남자 1만m 경보에서는 백광용이 44분 58초 8(중전기록 46분 44초 8)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와 육상경기 중흥

1964년 1월 IOC 총회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를 1968년에 열리는 제19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결정했다. 한국은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에 76명(임원 21명, 선수 55명)의 미니 선수단을 파견했다. 참가 종목은 복싱, 레슬링, 사격, 역도 등 입상이 가능한 종목과 지역 예선을 통과한 남자 농구, 여자 배구 그리고 육상경기, 체조, 수영 등 정책 종목을 포함한 10개였다.

그러나 10월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는 해발 2200m가 넘는 곳에서 열려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특히 육상경기 종목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의 '전멸'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성적이 부진했다.

한국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103개국 가운데 36위에 머물렀다. 이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목받은 것은 대회 성적이 아닌 예술문화행사단의 공연 덕분이었다. KOC가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가 중남미 대륙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선수단 이외에 82명의 예술단을 파견한 것이다.



◀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100m, 200m, 4x100m 릴레이, 4x200m 릴레이에서 모두 우승해 최초로 4관왕이 된 윤상순.
 ■ 1970년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일반부 100m 허들에서 16초 7로 대회신기록 세운 박성희.
 ▶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창던지기에서 71m 40을 던져 한국신기록 세운 박수권.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가 열린 이 해에 한·일고교교환경기대회가 창설돼 제1회 대회가 8월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국내 스포츠는 육상경기, 수영, 체조 등 기본 종목에서 일본에 크게 뒤진 실정이어서 이 교환 경기는 긴 안목으로 일본의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68년 세계 육상경기계에서 최고 뉴스는 남자 100m에서 10초의 벽이 깨진 것이었다. 1968년 6월 미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지미 하인스, 로니 레이 스미스, 찰리 그린 등 3명의 선수가 동시에 9초 9를 끊으며 10초의 벽을 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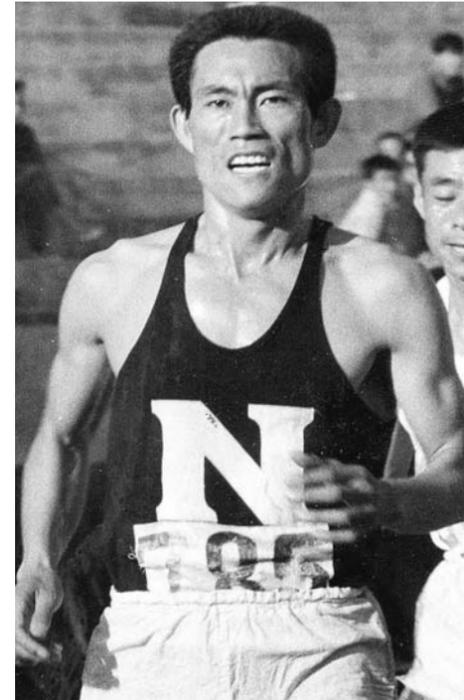
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공인되지 않았고, 10월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에서 하인스가 다시 9초 9를 주파함으로써 공식세계기록과 올림픽대회기록을 한꺼번에 깨뜨리며 금메달을 땀다. 멕시코 올림픽대회는 육상경기에서만 19개의 세계신기록이 나왔다. 또 높이뛰기에서 미국의 덕 포스베리가 처음으로 등으로 바를 넘는 신기술(배면점프)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1968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은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부터 여자 종목에 200m 허들, 1500m, 4×400m 릴레이 등 3개 종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대회마다 쏟아지는 한국신기록

1969년에도 백옥자, 홍상표의 신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4월 육상경기 시즌오픈 공인기록회에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백옥자가 14m 56(종전기록 14m 10),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천순임이 45m 22(종전기록 44m 5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7월 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하계 육상경기공인기록회에서는 1968년부터 여자 포환던지기 1인자로 등극한 백옥자가 14m 67(종전기록 14m 56)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도 4m 48(종전기록 4m 45)로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3만m 트랙 경기에서 김차환이 1시간 39분 1초 6을 마크해 1957년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3만m 트랙경기에서 임종우 선수가 세운 1시간 39분 13초를 경신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김차환은 1969년 제1회 홍콩 국제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1970년 제41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17분 34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웠고, 1977년 제44회 대회에서도 2시간 17분 1초로 다시 한 번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했다.

9월 제23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창던지기의 박수권이 70m 74(종전기록 70m),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가 4m 55(4m 34), 남자 10종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1만m에서 동메달을 딴 박봉근.

경기의 길정섭이 5870점(종전기록 5855점)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제50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 남자 10종경기에서는 정복송 6180점, 길정섭 5980(종전기록 5870점)으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고, 마라톤에서는 박봉근이 2시간 18분 18초(종전기록 2시간 19분 7초)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또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홍상표는 4m 57가 또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마라톤 중흥을 위해 1969년 3·1절 경축 진주~부산 간 역전경주대회가 창설됐다. 159.8km의 2개 구간, 16개 소구간에 걸쳐 이틀 동안 펼쳐진 이 대회는 마라톤선수를 발굴·육성에 큰 기여를 했다.

1970년에도 홍상표와 대학생이 된 백옥자의 활약이 계속되었다. 4월에 열린 공인기록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홍상표는 4m 60(종전기록 4m 57)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백옥자는 포환던지기에서 14m 77(종전기록 14m 56), 원반던



▲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창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딴 이복순의 훈련 모습.
▼ 1970년대 '아시아의 마녀'로 불리며 여자 포환던지기를 평정한 백옥자의 경기 장면.

지에서 46m 80(종전기록 45m 22)으로 2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70년 5월 제24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1차 선발대회에서도 백옥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백옥자는 포환던지기에서 14m 92(종전기록 14m 77), 원반던지기 46m 12(종전기록 45m 22)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백옥자가 세운 포환던지기 기록은 자신의 종전기록을 15cm나 늘린 것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유력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남자 5000m의 박봉근도 14분 44초 4(종전기록 14분 44초 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백옥자는 5월 일본 후쿠오카 전지훈련 중 참가한 오카야마실업단 육상경기선수권대회 포환던지기에서 15m 72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

고, 여자 창던지기의 이복순도 48m 50으로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다. 6월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대회에서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는 4m 64(종전기록 4m 60)로 자신의 13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3000m 장애물레이스에서 조재형 9분 32초 8(종전기록 9분 33초 F), 남자 10종경기에서 김병운 6227점(종전기록 6180점)으로 한국신기록이었고, 여자 근대5종에서는 박미숙 3554점(종전기록 3380점)과 이영희, 권복순 등 1~3위까지가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7월 초 제3회 한일고교교환경기 육상경기선수선발 겸 전국남녀고교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정옥주가 16초 1(종전기록 16초 2)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정옥주는 8월 우수선수공인기록회에서 16초 F(종전기록 16초 1)로 다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고, 박미숙도 같은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9월 우수선수공인기록회에서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1500m에서는 최영심 4분 56초 5, 권남순 4분 57초 2(종전기록 4분 59초 F)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고, 여자 5종경기의 박미옥 3641점(종전기록 3554점), 남자 창던지기의 박수권 71m 88(종전기록 70m 74), 2만m의 조재형도 1시간 4분 20초 2(종전기록 1시간 5분 29초 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70년 제51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장대높이뛰기 홍상표 4m 65(종전기록 4m 60), 1만m 경보 백광용 44분 53초 F(종전기록 44분 58초 8), 창던지기 박수권 71m 40(종전기록 70m 74) 등 남자부에서만 3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백옥자 '아시아의 마녀'로 등극

1970년 12월 제6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백옥자는 14m 57을 던져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마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한 이 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수권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1

스포츠의 과학화와 시설 투자

만m의 박봉근, 마라톤의 강명광,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 여자 원반던지기의 백옥자, 여자 창던지기의 이복순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3000m 장애물 레이스의 조재형은 5위에 그쳤지만 9분 23초 1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18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23개로 일본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백옥자는 4년 뒤인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포환던지기에서도 우승해 2연패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1975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친선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백옥자는 서울대회에서 주 종목인 포환던지기는 물론 원반던지기까지 제패해 아시아 투척 여왕의 자리에 등극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자 포환던지기 역대 1인자를 꼽으라면 당연히 백옥자다. 그는 박문여고 시절인 1969년 4월 공인 기록회에서 14m 67을 던져, 1968년 건국대의 천순임이 세운 13m 94를 73cm 나 더 넘겨 14m대 진입을 실현했다.

1970년 건국대에 진학한 백옥자는 같은 해 6월 일본 오카야마 기록회에서 15m 12를 던져 15m대 문을 열었다. 여세를 몰아 같은 해 12월 방콕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포환던지기는 국내에선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한 종목이었지만 백옥자는 당당한 체구와 놀라운 기록으로 아시아의 스타가 됐다.

그는 1974년 4월 공인기록회에서 자신의 다섯 번째 한국기록인 16m 96을 던졌다. 특히 이 대회에서 백옥자는 원반던지기에 참가해, 자신의 두 번째 한국기록인 50m 58을 던져 단숨에 50m대 진입을 이룩해 냈다. 그리고 21년이 지난 1996년 3월 상하이 육상경기대회에서 충남대의 이명선이 포환던지기에서 17m 02를 던져 백옥자의 기록을 깨 일대 사건을 만들었다.

“과학의 뒷받침과 시설 확충 없이는 체육이 설 자리는 없다.”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가 끝나고 선수단 해단식에서 민관식 선수단 단장은 이렇게 잘라 말했다. 그의 말대로 당시는 스포츠의 과학화와 체육시설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후 민관식 대한체육회장은 체육 부흥 6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골자는 이렇다. 첫째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자 자질 향상, 둘째 체육시설 확충, 셋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실시, 넷째 스포츠의 과학화, 다섯째 스포츠 인재의 발굴 등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지부진하던 체육회관 건립을 매듭지으려는 민관식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국내 스포츠 환경 개선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마침내 1966년 6월 15일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체육회관이 착공된 지 2년 8개월 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

민관식 회장은 자신의 계획대로 스포츠 과학화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재교육과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코치 아카데미를 발족시켰다. 당시 체육계 풍토에서 지도자 재교육은 기존의 권위를 무시하는 도전으로 비쳐 그 성



☞ 1965년 10월 광주 전국체육대회에서 대회장 관리 소홀로 14명이 압사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공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1965년 12월 20일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기 코치 정규 강습회를 열어 한 달 뒤 최윤철 등 15개 종목 4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코치 강습회는 코치 아카데미로 격상됐고 점차 스포츠 단기대학 같은 위상으로 정착돼 한국 스포츠 과학화에 새 지평을 열었다. 이에 앞서 1957년 치러진 제38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지방 순회 개최가 시행되었다. 바야흐로 전국체육대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체전 참가 선수단 규모가 1만여 명에 이르러 경기장과 숙소 등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을 촉진한 것이다. 전국체육대회가 두 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된 1960년 제41회 충남 대전 전국체육대회는 새로 마련된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됐다. 이는 지방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 효시가 되었다.

1965년 10월 5일 제4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전남 광주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종래의 경기장을 허물고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1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야구장을 세웠다. 또한 구동의 광주공원에는 3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을 만들었다. 지방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7선녀에 의해 점화된 성화가 장장 450km를 달려 최종 주자 심상옥에 의해 점화되자 대회장은 흥분의 도가니로 들끓었다. 이렇듯 대회 분위기가 고조됐음에도 대회장 관리에 소홀해 결국 불상사가 터졌다. 인파에 밀려 사람들이 깔리면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었다.⁰⁰⁷

침체됐던 한국 마라톤의 기록 향상

이 무렵, '육상경기의 꽃'인 마라톤에서 획기적인 기록 향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5년 5월 4일 종합선수권대회에서 2시간 20분 19초 2로 우승한 김복래가 1966년 3월 13일 동아일보사~소사 농촌진흥청 앞 왕복 코스에서 벌어진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 19분 07초의 대기록을 수립했다. 당시 체육계의 숙원이던 20분 벽을 돌파한 것이다.⁰⁰⁸ 1947년과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제패 이후 한동안 침체했던 한국 마라톤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갖게 해 준 쾌거였다.

1967년 동아마라톤대회에서 다시 2시간 20분을 뛰어넘는 호기록이 나왔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소속인 유명종이 수훈을 세웠다. 1967년 3월 12일에 열린 이 대회는 광화문~오류동 코스에서 열려 유명종이 2시간 19분 44초로 우승했다. 한국신기록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2시간 21분 05초로 2위를 차지한 박봉근은 새로운 얼굴로 기대를 모았고, 3위는 전년도 아시아

⁰⁰⁷ 김상구 논문, 2007, p32.

⁰⁰⁸ 김세호 논문, 2006, p40.

태릉선수촌 건립



1960년대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스포츠의 과학화를 위해 태릉선수촌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사실 태릉선수촌은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앞선 해인 1963년 1월 31일 '우수선수 강화훈련단'이 결성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건물(대지 212평, 건물 156평) 한 채를 사들여 합숙훈련을 시작했다. 이것이 이른바 '동숭동 합숙소'요, '태릉선수촌'의 전신이다.⁰⁰⁹ 도쿄 올림픽대회에서 참담한 성적을 낸 이후 대한체육회는 우수 선수의 지속적 강화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서울 공릉동에 대지 9786평을 확보해 건평 540평의 건물을 짓고 1966년 6월 28일 태릉선수촌 준공식을 열었다. 선수촌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줄곧 대지와 시설을 확충해 나가 최근에는 초기보다 점유 면적이 10배에 달한다.

1970년 3월 실내수영장, 1971년 2월 옥외 스케이트장, 1972년 6월 전진관(前進館)이라는 남자선수 숙소가 잇따라 건립되었다. 1973년 12월에는 승리관(실내체육관, 주로 배구·농구)과 영광의 집(여자 숙소)이 세워졌다. 2년 후인 1975년 10월에는 개선관(凱旋館(주로 복싱·유도·체조)이, 이듬해 1976년 12월에 선수식당이 들어섰다.

1978년 12월에는 월계관(月桂館(체력 육성과 다목적 체육관)과 테니스장이 준공됐다. 이어 1982년 2월 숙박시설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서 남자 숙소인 '올림픽의 집'이 들어섰고 같은 해 7월 육상 경기장(트랙)의 합성포장,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입히는 공사가 마무리되었다.⁰¹⁰

그리고 국제 스케이트장을 비롯해 실내 수영장, 실내 빙상 경기장 마련하고 동계 전지훈련에 필요한 선수촌 진해분촌과 온양온천 수영장을 열어 그야말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천후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966년 제37회 동아마라톤에서 김복래가 20분 벽을 깨뜨리며 우승했다.

경기대회 동메달리스트인 이상훈이 차지했다. 이 대회는 42.195km로 바뀐 뒤 해마다 새 얼굴이 나타나 기록 향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5년 연속 한국기록을 갈아 치운 한국 마라톤은 이후 3년간 기록행진이 주춤했다. 그러다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박봉근이 2시간 18분 18초의 한국기록을 세우면서 기록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 해의

⁰⁰⁹ 이학래 외, 1994, p334.

⁰¹⁰ 두산백과 참조



1969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펼쳐진 매스게임.

체전은 반세기가 되는 50돌 기념 대회라 해서 서울에서 열렸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 큰 규모인 데다 새 아이디어가 첨가돼 이채를 띠었다. 성화의 전국 일주, 3000여 학생들이 스탠드를 수놓고 움직이는 그림을 형상화한 카드섹션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북 5도 임원단이 입장식에 참가한 것도 이 대회 부터였다.

1970년 동아일보는 처음으로 외국 선수를 초청해 동아마라톤을 국제대회로 격상시켰다. 처음 초청된 외국 선수는 캐나다의 윌링포드, 일본의 가네유키, 요



◀ 1969년 제1회 홍콩 국제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한 김차환. 그는 이듬해 3월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 17분 34초 4로 18분의 벽을 허물었다.
▶ 김차환이 1972년 3월 제43회 동아마라톤에서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는 모습.

네시게 등 3명이었다.

이들은 한국기록보다 2, 3분 빠른 한 수 위의 선수들이었다. 코스도 국제대회답게 서울운동장~의정부 왕복의 평탄한 코스로 기록 단축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참가 선수는 34명.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넉 달 전 홍콩 국제마라톤대회 우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차환은 일본 선수를 막판에 따돌리고 40km 지점에서 스피트해 2시간 17분 34초 4의 한국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 마라톤이 대망의 2시간 17분대에 진입한 것이었다. 2위 송금용, 3위 조

제형도 2시간 20분 안에 들어와 한국 마라톤의 희망을 부풀게 했다. 우승 후보로 꼽힌 일본의 두 선수는 14, 15위를 했다. 이후 김차환은 1972년 뮌헨 올림픽 파견 1차 선발전을 겸한 동아마라톤에서 우승했다. 17분 벽을 깨지 못한 2시간 19분 34초 4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는 1973년 같은 대회에서 다시 한 번

도약했다. 김차환은 이 대회에서 한국 마라톤의 대들보답게 무서운 투혼을 과시해 3년 전 작성한 자신의 종전 한국 신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2시간 17분 01초로 세 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이뿐만 아니라 2위 문흥주, 3위 이종하 등 신인들도 20분 벽을 뚫고 한국기록에 근접해 대회를 빛냈다. 1974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는 또다시 한국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이 대회는 서울 시내의 도로공사와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종암동~주내역을 왕복하는 코스로 바뀌었다. 문흥주는 50여 일 전 조재형이 제6회 교토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16분 26초의 한국 신기록을 11초 앞당긴 2시간 16분 15초의 기록을 작성했다. 국내 마라톤대회에선 처음으로 16분대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⁰¹² 이 대회에서 조재형, 김차환 등 대표급 선수들이 부진해 레이스를 이끌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15분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한국마라톤후원회 발족



☞ 문흥주가 제45회 동아마라톤에서 뒤따르는 선수 없이 독주하고 있다.

1974년 문흥주가 2시간 16분 15초의 한국최고기록을 세운 뒤 10년간 한국 마라톤은 휴면기나 마찬가지였다. 한국기록 경신은 물론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도 기록 저조 현상이 계속돼 마라톤을 비롯한 나머지 육상경기 종목들도 대회 참가가 어려웠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이 때문에 자라나는 선수들이 의욕과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선수층은 점차 얇아지고 기록 경신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한국 마라톤은 쇠퇴현상을 보였다. 이런 낙후된 한국 마라톤의 발전을 꾀하고자 1979년 '한국마라톤후원회'가 발족됐다.⁰¹¹

마라톤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마라톤 장학금 지급이었다. 다음은 국가대표 마라톤선수의 훈련 지도를 위해 외국인 코치 초청, 그리고 이들과 국내 코치, 선수들의 국내외 전지훈련 지원 등이었다.

기타 한국 마라톤 발전에 기여할 제반사항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마라톤후원회 임원진은 7~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뒀다. 이사장은 이사 가운데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이사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이었다.

⁰¹¹ 김세호 논문, 2006, p42.

⁰¹² 김세호 논문, 2006, p41

흩어진 체육계 다시 뭉치다



대한체육회를 이끌며 체육 행정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한 민관식 전 회장

1960년대 체육계는 3개 단체가 제각기 자신의 위상만을 고집해 분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1966년 12월 5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선발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었다.

KOC는 대한체육회가 선수 양성만 하고 파견권은 자신들에 맡겨서 선수단 구성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선수 전형이 아닌 파견 임원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로선 해외여행이 일종의 특권이어서 파견 임원 선정 권한을 행사하려는 KOC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각 경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966년 1월 강상욱이 11대 회장에 취임했지만 1년 9개월 만인 1967년 10월 돌연 하차했다.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렸으나 전형위원들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여곡절 끝에 1968년 1월 민관식이 제12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행정 체제를 갖춰 마라톤 신인 선수 강화 훈련, 육상경기 용구 확보 등의 활동이 펼쳐졌다. 대한학교체육회 역시 대외경기가 체육교육의 연장이며 평가 기회가 돼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대한학교체육회는 이에 제1회 학도체육대회를 1966년 5월 효창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대한학교체육회는 각 시도 지부장을 교육감이, 전무이사를 체육장학관이나 보건체육과장이 맡아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해 수업 결손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중앙의 경기 통합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 연간 출장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한체육회로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971년 김택수 대한체육회 회장 취임 기념 사진. 김종필 국무총리(왼쪽에서 세 번째), 김영삼 국회의원(네 번째), 민관식 당시 문교부 장관(맨 오른쪽)

대한체육회는 이에 따라 대중매체를 앞세워 통합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급기야 일원화를 선호하던 청와대가 3개 체육단체의 통합을 지시했다. 1968년 2월 대통령의 체육단체 기구 일원화 지시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KOC, 대한학교체육회 등 3개 단체는 대한체육회로 통합됐다.⁰¹³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시도 지부는 학교체육회와 경기단체 시도 지부를 흡수 통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체육회는 아마추어 단체로 조직되고 KOC는 특별기구로 하되 KOC 위원장이 대한체육회장을 겸하도록 했다. 1968년 2월 29일 통합된 새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민관식이 선출돼 KOC 위원장을 겸하게 됐고 장기영 전 KOC 위원장은 명예회장에 추대돼 정식으로 통합 대한체육회 시대가 열렸다

⁰¹³ 이학래 외, 1994, p330.

4

체력은 국력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일기 시작한 스포츠 내셔널리즘은 뮌헨 올림픽대회를 정점으로 해 이제 전 세계를 열풍과 같이 휩쓸고 있고,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군은 국력의 상당 부분을 경기력 향상에 경주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정치적 선봉까지 가세해 중공이라는 새로운 거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그 여파는 우리의 스포츠 전도에 더욱 가중된 책임과 분발을 촉구하게 만들었다.”⁰⁰¹

대한체육회 제24대 회장이던 김택수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김택수의 글에서 엿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체육을 국가 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국력 배양을 통한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체육이 중

⁰⁰¹ 김택수, '스포츠 대중화의 전기로-제13회 체육주간을 맞으며', 월간체육, 1975년 4월호.



1972년 10월 서울의 고교입시 체력검사장에서 공던지기를 하고 있는 여중생.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과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의 추진을 불러왔다. 세계적으로 볼 때 1960년대는 체력이 대단히 중요시되는 시기였다. 미국은 미국 청소년의 체력이 유럽에 비해 뒤져 있다는 측정 결과에 자극받아 1956년 대통령 직속 청소년체력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해 꾸준히 실천해 왔다.

서독의 경우 1961년 골든 플랜, 일본은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국



1972년부터 전국체육대회에서 초등부와 중등부가 분리돼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를 별도로 열었다. 사진은 1978년 소년체전 성화 점화 장면.

민 체력 만들기 운동의 목표 아래 체육시설 확충 등의 국민 체육 진흥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체력 우선’이란 용어가 탄생하게 된다.⁰⁰² 이처럼 세계적으로 청소년 체력 증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1971년 1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현옥은 “문교부의 협조를 얻어 학원 스포츠를 재건하는 데 전념하고 직장마다 육상경기팀을 발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장 출신인 김현옥 회장조차 연맹 내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취임 5개월 3일 만에 사퇴했다. 1971년 7월 정상희가 제14대 회장이 되었다. 양정고보와 메이지 대학을 나온 정 회장은 대학 시절 중거리 달리기 선수로 활약한 바 있어, 육상경기인 출신 첫 연맹 회장이 되었다.

1972년 들어 정부는 학교체육을 강화하며 체력장 제도를 실시하는가 하면

체육진흥기금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체육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구체화했다. 체육진흥기금재단은 훗날 ‘경기력 향상 연구기금’으로 불린 유공有功 경기인에 대한 연금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연금제의 실시가 한국 체육계에 큰 자극제로 작용해 메달리스트 양산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풍토 속에 1970년대 초에는 많은 대회가 창설됐다. 1971년 목포~서울 518.3km를 5개 구간, 55개 소구간으로 나눠 닷새 동안 달리는 경호역전경주대회를 필두로 대통령기 쟁탈 전국통일역전경기대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1972),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1973년)가 각각 시작됐다. 국제대회로는 1973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친선육상경기대회를 들 수 있다.

197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1972년 제53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초등부와 중등부가 따로 떨어져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별도로 열게 됐다.⁰⁰³ 직전 대회인 제52회 대회 당시 27개 종목에 1만6000명이 넘는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하는 체전 비대화 현상이 나타나 대회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따랐고 체육대회의 지방 개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회 분리의 기본 취지에는 소년들이 성인들의 그늘 밑에서 경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점과 과열 경쟁에 휘말려 체육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고려됐다.

⁰⁰² 이학래 외, 1994, p313~314.

⁰⁰³ 이학래 외, 1994, p315.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권 반납



왼쪽부터 1971년 제14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정상희, 1972년 제15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한 이주훈, 이주훈 회장은 1975년에 아시아육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77~1978년 제16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부완혁, 1979년 제17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이인근.

1972년 6월 대한육상경기연맹 대의원총회에서 이주훈 부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정상희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후 이주훈 회장은 한국 육상경기 재건에 앞장서는 한편 해외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1973년 아시아육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1975년에는 회장으로 추대됐다. 1979년 5월 아시아육상경기연맹은 회장 임기를 마친 이주훈 전 회장을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김창근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1977년 1월 이주훈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전원 총사퇴를 하자 대한육상경기연맹은 3월 제16대 회장으로 울산실업 회장인 부완혁을 선출했으나 새 집행부 구성을 놓고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집행부가 한동안 공백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1978년 4월 부완혁 회장을 재추대하면서 연맹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

1979년 8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인근을 제17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 이상 대학에까지 기본 종목인 육상경기를 의무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인근 회장 체제는 1980년 9월 대한체육회가 가맹 32개 경기단체장을 대폭 물갈이하는 상황에서 장익용 회장 체제로 넘어간다.

1966년 제5회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열린 아시아경기연맹AGF 총회에서 4년 뒤 1970년 열리는 제6회 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었다. 당시 국내 체육시설이라야 3만4000평 규모의 동대문운동장과 7822평의 효창축구장이 있을 뿐이었다. 실내 체육시설도 1962년 말 준공된 장충체육관이 전부였다.

그리고 외빈들이 묵을 국제 규모의 호텔은 워커힐이 고작이었다. 이런 시설로 아시아인들의 축제를 치를 순 없었다.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청와대는 결국 1967년 가을 체육계 대표에게 “대회를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문제는 1954년 제2회 마닐라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임원들 사이에 처음 제기돼 1966년 6월 14일 장기영 KOC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19일 유치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데 이어 8월 15일 김현옥 서울시장이 제6회 대회 유치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스리랑카를 제치고 1966년 12월 5일 만장일치로 1970년 제6회 대회 개최국으로 결정됐다.⁰⁰⁶ 그런데 유치 결정이 난 지 불과 1

년도 안 돼 반납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날벼락을 맞은 체육계는 일본에 대표를 급파해 제6회 대회를 대신 치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은 1970년 오사카에서 만국박람회EXPO를 열 예정인데다 2년 뒤인 1972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동계올림픽대회를 치러야 할 형편이어서 아시아경기대회까지 개최할 여력이 없었다. 한국은 다시 태국 방콕을 찾아가 대회 개최를 부탁하는 민망한 처지가 됐다. 태국 역시 앞선 제5회 대회 개최로 엄청난 적자가 쌓여 차기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거절했다.

태국 방콕에 긴급 개최 요청

AGF현OCA는 1968년 4월 30일부터 서울에서 긴급총회를 열었다. 그리곤 5월 1일 AGF 집행위원회는 “한국이 1970년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수 없으며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회 개최는 유산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집행위원회는 이 합의 내용을 같은 날 이어 열린 AGF 총회에 제출했다.

총회는 토의 결과 세 가지 항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첫째, 한국은 대회 유치 포기 결정을 재고하되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규모를 축소한다. 셋째, 한국이 도저히 대회를 열 수 없다면 태국이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대회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책임과 국력에 따라 각 회원국이 나눠 맡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스포츠계는 실력으로 자존심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 4월 육상경기 시즌오픈 공인기록회가 18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었다. 백

006 서울체육 반세기, 2002, p186. 당시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결하고 있던 국내에선 아시아경기대회에 막대한 재원을 지출하다 보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치관계가 격화되어 있어 국방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수 형성되어 있었다.



1970년대 남자 10종경기에서 수 차례 한국신기록을 세운 김병윤.

옥자는 포환던지기에서 14m 77(종전기록 14m 56)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원반던지기에서도 46m 80(종전기록 45m 22)으로 한국기록을 다시 썼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홍상표가 4m 60(종전기록 4m 57)으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을 깨뜨렸다. 4월 일본 전지훈련 중 남자 높이뛰기의 박상수가 2m 3(종전기록 2m)을 넘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5월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1차 선발전에서는 백옥자가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백옥자는 포환던지기에서 14m 92(종전기록 14m 77), 원반던지기 46m 12(종전기록 46m 80)을 기록했는데, 특히 포환던지기는 일본기록 보유자인 사이토의 14m 77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어서 일찌감치 아시아경기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남자 5000m에서는 박봉근이 14분 44초(종전기록 14분 45초)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6월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대회에서는 또다시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가 4m 64로 자신의 13번째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남자 3000m 장애물에서 조재형은 9분 32초 8(종전기록 9분 33초 F), 남자 10종경

기에서 김병윤이 6227점(종전기록 6180점), 여자 근대5종에서 박미순 3554점, 이영희 3498점, 권복순 3406점(종전기록 3380점) 등 6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7월 제3회 한일고교교환경기 선수선발 겸 전국남녀고교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정옥주가 16초 1(종전기록 16초 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8월에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6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안영한을 코치로 백옥자, 이복순이 참가했으나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9월 제2차 우수선수 공인기록회에서는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5종경기에서 박미옥이 3641점(종전기록 3554점),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수권이 종전 자신이 세운 기록보다 무려 1m 14를 더 던진 71m 88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1500m에서는 최영심 4분 59초 5, 권남순 4분 57초 2(종전기록 4분 59초 F)로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10월 제51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홍상표 4m 65, 1만m 경보에서 백광용 44분 53초 F, 창던지기 박수권 71m 40, 10종경기 김병윤 6321점(종전기록 6227점) 등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11월 제2회 전국고교육상경기대회 여고부 4×400m 릴레이에서 3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경기팀 4분 11초 3으로 1위, 서울팀 4분 11초 7로 2위, 전남팀 4분 15초 3으로 3위(종전기록 4분 17초 8)까지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예정대로 1970년 12월 11~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태국 관중들은 한국 때문에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대회를 열게 됐다며 한국 선수단에게 야유는 퍼부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18개 등 모두 54개의 메달을 획득해 목표한 대로 일본에 이어 종합 2위를 달성했다.

육상경기 종목은 백옥자가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4m 57(종전기록 14m 48)로 아시아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원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수권이 은메달을 따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동메달을 기대했던 남자 5000m에서 박봉근, 조재형이 4000m까지 선두그룹을 유지했으나 한국선수들끼리 발뒤꿈치를 밟는 실수로 인해 아쉽게 각각 5위와 7위에 머물렀다.

1971년 한국 스포츠계는 이듬해 열린 뮌헨 올림픽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집행부가 두 번이나 바뀌는 등 혼란 속에 전반적으로 기록은 부진했다. 6월 열린 제26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은 물론 대회기록조차 나오지 않았다. 7월 일본 간사이 대학팀 초청 한일친선육상경기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박상수가 1m 94.7(종전기록 1m 90)을 넘어 18년간 깨지지 않고 있던 한국기록을 경신한 것이 최대 수확이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홍상표는 4m 70(종전기록 4m 65)으로 자신의 16번째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8월 제33회 싱가포르 육상경기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백옥자는 15m를 던져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14m 57의 아시아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고, 남자 1500m에서 박석관이 4분 2초 3으로 금메달을 딴 것을 포함 금메달 2,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하지만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고교교환경기에서 육상경기는 한 종목에서도 이기지 못하며 참패를 당했다.

10월 제52회 전국체육대회는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홍상표가 4m 71(종전기록 4m 70), 높이뛰기에서 박상수가 2m(종전기록 1m 95), 여자 1500m에서 최영심이 5분 6초 9(종전기록 5분 20초 F)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71년 한 해 동안 작성된 한국신기록은 다 4개뿐이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권을 반납한 대신 한국은 체육 기반 구축 등 내실을 기하는 데 박차를 가하며 1972년을 맞이했다. 1972년에는 무엇보다 8월에 열리는 뮌헨 올림픽대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4월 공인기록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백옥자가 16m 15(종전기록 15m 72)로 마의 16m 벽을 넘어서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 일본 전지훈련 중 남자 높이



◀ 1970년대 초 한국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선수였던 박상수.
▶ 1972년 여자 5종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안춘희.

뛰기의 박상수가 2m 6(종전기록 2m)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올림픽기 기준기록인 2m 15에 바짝 다가간 기록이어서 기대를 모았다. 박상수는 일주일 뒤 올림픽대회 최종 선발전에서 자신의 기록을 2m 8로 끌어올렸다.

5월 제26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7개의 한국신기록과 1개의 한국타이기록이 나왔다. 특히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조대여고팀 4분 15초 F, 이화여고팀 4분 15초 6, 박문여고팀 4분 16초 3(종전기록 4분 17초 3)으로 1~3위까지가 모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5종경기에서는 안춘희 2844점, 권복순 2581점(종전기록 2581) 2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백옥자는 주종목인 포환던지기에서 16m 21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원반던지기에서 46m 80으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7월 한일고교교환경기대회 대표선수 선발 겸 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다시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이화여고팀은 홍영숙의 역주에 힘입어 4분 13초 2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다.

8월 민헨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독일 전지훈련 중 백옥자가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6m 54(종전기록 16m 15)로 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아시아신기록인 동시에 민헨 올림픽 기준기록인 16m 2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큰 기대를 모았다. 9월 싱가포르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5000m에서 김차환이 14분 45초 6으로 우승을 하며 한국팀에게 유일한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한국은 민헨 올림픽대회 참가에 앞서 선수단 구성에서부터 갖은 잡음에 시달렸다. 선수단은 소수정예의 원칙에 따라 선발됐는데,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선수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초 선수단은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6위 이내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종목과 해당 선수를 엄격하게 선발하기로 돼 있었다. 잡음 속에 확정된 선수단은 임원 13명, 선수 26명 등 모두 39명으로 역대 최소 규모였다. 참가 종목은 여자 배구, 복싱, 역도, 레슬링, 유도 등 5개 종목. 한국은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것이 유일했다. 육상경기에서는 기대했던 여자 포환던지기의 백옥자조차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참가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기록으로 대부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민헨 올림픽대회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10개 종목에 걸쳐 8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북한의 호칭인 DPRK는 1969년 6월 제68차 IOC 총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북한은 사격에서 금, 레슬링과 유도, 여자 배구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배구의 동메달은 한국과의 3, 4위전에서 따낸 것이었다.

민헨 올림픽대회가 끝나고 1972년 10월 제5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다. 올림픽대회 참패를 만회라도 하듯 대회 둘째 날 남자 높이뛰기에서 박상수가 2m 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1월 열린 제2회 전국고교육상경기대회 여고부에서만 3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4×400m 릴레이에서 경기팀이 4분 11초 3으로 1위, 서울팀이 4분 11초 7로 2위, 전남팀이 4분 15초 3으로 3위(종전기록 4분 17초 8)를 했다.

이란은 왜 마라톤을 하지 않을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이란이다. 이란은 1974년 자국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마라톤 종목을 제외했다. 처음부터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이처럼 이란이 마라톤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라톤의 기원에서 비롯된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 사신을 보내 무조건 항복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아테네는 항복은커녕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 속에 넣고 매장해 버린다. 화가 치민 다리우스는 전함 600여 척에 10만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 아테네 정벌에 나선다. 페르시아군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4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까지 진격해 왔다. 마라톤 평원 전체를 둘러싼 페르시아 군대의 위용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위세에 눌려 아테네 장군들은 이 전투를 포기하고 후퇴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이때 밀티아데스 장군이 나섰다. 마라톤 평원에서 후퇴한다면 아테네는 물론 그리스 전체가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밀티아데스는 용장 칼리마코스 장군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둘의 설득으로 싸우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전선 중앙부에 비교적 약한 군을 배치하고 좌우로 강력한 부대를 포진해 둔 밀티아데스의 작전에 말려들어 페르시아군은 앞뒤로 포위된 채 무너졌다.

승전보를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아크로폴리스로 향했다. 그는 쉬지 않고 달려 가슴을 졸이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한 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반면 페르시아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마라톤 전투는 끔찍한 기억이다.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이 지금도 마라톤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⁰⁰⁷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등의 다른 중동 국가들도 그런 이유로 대부분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 물론 모로코 등 일부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마라톤 선수가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다.

1972년 10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듬해인 1973년 5월 서울에서 아시아 친선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선언하고 마라톤을 제외한 남자 17개, 여자 13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진다고 홍보했다. 연맹은 1972년 10월부터 <육상경기월보>를 발간해 국내외 육상경기계 정보와 선수 동향을 소개하기로 했고, 12월에는 육상경기 보급과 통일된 경기규칙지도를 위해 <육상경기교재>를 발간했다. 교재는 이윤석, 성훈영, 이창훈, 최무기, 이장원, 안영한이 트랙과 필드를 분야별로 집필해 배포했다. 또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신기록을 연도별로 결산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규정을 채택했다.

1973년 아시아친선육상경기대회 서울 개최

1973년 4월 아시아친선육상경기대회 최종선발전에서 백옥자가 원반던지기에서 47m 10(종전기록 46m 80)을 던져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100m 허들에서는 우선속 15초 2, 정순화 15초 4(종전기록 15초 6)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고, 남자 110m 허들에서는 김영희가 15초 2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이는 1937년 조선-만주대항대회에서 이장완이 세운 기록에 도달하는 데 무려 36년이 걸린 것.

5월 11일 제1회 아시아친선육상경기대회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다. 10개국 18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이주훈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가 아시아 육상경기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⁰⁰⁷ www.eRunNews.com 참조.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3, 은메달 7, 동메달 15개로 1위를 했고, 남녀 선수 13명만 출전시킨 일본이 단거리 종목을 석권하며 메달 12개를 따 2위를 했다. 한국신기록도 7개나 나왔다. 여자 100m 허들에서 우선숙은 15초 1(종전기록 15초 2)로 4위에 그쳤으나 한국신기록 작성에 성공했다.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한국A팀 4분 5초 4, B팀 4분 7초 6(종전기록 4분 11초 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나란히 1,2위를 했다. 여자 1500m에서도 권남순 4분 35초 8, 박장엽 4분 45초 6(종전기록 4분 47초 F)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1,2위를 했다.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백옥자는 47m 90(종전기록 47m 10)을 던져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남자 110m 허들에서 김영희는 14초 8(종전기록 15초 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특히 여고생 권남순은 800m, 1500m, 4×400m 릴레이 등 3종목에서 1위를 하며 이 대회 유일한 3관왕이 됐다.

1973년 6월 제2회 전국남녀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한일친선육상경기대회 대표 선발전에서는 중학생인 엄중성이 남자 100m에서 11초 1로 우승하며 차세대 스프린터로 기대를 모았다. 8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아마추어육상경기대회에서 백옥자는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4m 61로 자신이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세운 아시아기록을 경신했다. 여자 창던지기에서 이복순도 45m(종전기록 37m)를 던져 아시아신기록을 세웠다.

9월 제1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여중생 이인숙이 여자 100m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인숙은 100m 예선에서 12초 3의 한국타이기록을 세우더니 다음날 준결승전에서 12초 F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인숙은 11월 제1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12초 F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으나 최종 순위는 8위에 머물렀다.

10월 제5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높이뛰기는 여고부의 이옥순과 김영란의 대결 속에 두 선수 모두 1m 58(종전기록 1m 57)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4×



왼쪽부터 1973년 제1회 아시아친선육상경기대회 3관왕에 올랐던 권남순. 가운데는 1973년 여중생으로 여자 100m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인숙. 당시 기록은 12초 F. 1970년대 중반 국내 여자 높이뛰기의 기록 경신을 이끈 이옥순.

400m 릴레이에서는 경기팀이 4분 10초 F(종전기록 4분 11초 3), 남자 10종경기에서는 김병윤이 6404점(종전기록 6207점)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1월 제1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결과는 일본의 종합 우승. 일본은 38개의 금메달 중 19개를 따며 아시아 육상경기 강국임을 입증했다. 한국은 마라톤과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탄 2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3, 동메달 2개로 종합 5위에 머물렀다. 백옥자는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5m 05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고, 남자 마라톤에서 조재형은 2시간 27분 30초 2로 1위, 박창렬이 2시간 33분 44초 6으로 2위를 했다.

남자 10종경기의 김병윤은 6520점(종전기록 6509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4위를 했고, 여자 1500m의 권남순도 4분 42초 9(종전기록 4분 47초 F)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5위에 그쳤다.

1973년 11월 아시아육상경기연맹은 1975년에 열리는 제2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서울 개최를 결정했다. 또 아시아육상경기연맹 부회장에 선출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이주훈 회장은 서울 대회에 북한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의 입장 모습.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은 2년 전 북한에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남북 모두 15개 종목에 참가한 가운데 배구, 탁구, 농구 등에서 완승했고 레슬링, 복싱 등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육상경기에서는 백옥자가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6m 28을 던져 이 종목 2연패를 이룩했다. 남자 5000m에서 김향조는 15분 34초 4로 8위에 그쳤다.

1974년 3월 동아마라톤에서 문홍주가 2시간 16분 15초 F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한국 육상경기는 기분 좋은 한 해를 시작했다.

이어 4월에 열린 시즌오픈 공인기록회에서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먼저 백옥자는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6m 96으로 종전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16m 15)을 무려 81cm나 경신했고, 원반던지기에서도 50m 58로 종전기록(47m 90)보다 2m 68이나 더 던지며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남자 5000m에서는

1위 오태식 14분 33초 4, 2위 문홍주 14분 35초 F(종전기록 14분 35초 8)로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74년 육상경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여자 높이뛰기의 이옥순이다. 대구 경명여고생인 이옥순은 1973년 전국체육대회에서 1m 58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후 꾸준히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여자 높이뛰기의 일인자로 군림했다. 1974년 5월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최종 선발전에서 이옥순은 1m 60으로 자신의 기록을 끌어올렸다. 이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의 박상수도 2m 13을 뛰어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시아 최고기록은 2m 15.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메달 획득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여자 포환던지기의 백옥자도 종전기록보다 25cm나 더 던진 16m 40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이 기록은 4월 시즌오픈 공인기록회에서 세운 16m 96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6월 남녀육상경기종별선수권대회 5000m에서 오태식이 14분 32초 2(종전기록 14분 35초 8)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남자 200m에서 오세진이 21초 3으로 1958년 정기선이 세운 한국기록을 16년 만에 0.2초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여자 높이뛰기의 이옥순은 1m 60(종전기록 1m 58)으로 자신의 기록을 2cm 끌어올리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6월 싱가포르오픈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7개국이 참가했는데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각국의 전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자 800m에서 박석관이 1분 50초 1로 1위, 남자 1만m에서 채준석이 31분 9초 8로 1위를 했다.

7월 대만에서 열린 한국, 자유중국, 태국, 필리핀 4개국 초청 육상경기대회에서 한국은 높이뛰기에서 이옥순 1m 60, 100m에서 이경자 12초 3, 400m에서 김경숙 57초 2, 4×100m 릴레이 1위 등 여자 선수들이 맹활약을 했고, 남자 1500m에서 박석관이 4분 1초 8로 1위를 했다.

9월 제2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높이뛰기에서 이옥순이 1m 65(종전기록 160)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400m에서는 김경숙이 56초 7로

1966년 한명희가 수립한 한국기록을 0.1초 단축했다.

1974년 9월 열린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은 2년 전 북한에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남북 모두 15개 종목에 참가해서 배구, 탁구, 농구 등에서 남한이 완승을 했고 레슬링, 복싱 등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한국은 종합순위 4위, 북한은 5위를 했다. 그러나 육상경기 결과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백옥자가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6m 28을 던져 2연패에 성공하고 남자 1500m에서 박석관이 3분 52초 74(종전기록 3분 53초)의 한국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딴 것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 1만m에서 문홍주가 5위, 5000m에서 김향조 8위, 문홍주 9위를 했고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간판스타 홍상표도 7위에 머물렀다.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오태식이 남자 1만m와 5000m에서 모두 1위를 하며 2관왕에 올랐고, 테헤란 대회 동메달리스트인 박석관은 전국체육대회 4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다. 한편 1965년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이래 한국 장대높이뛰기의 1인자로 전국체육대회 14회 참가, 한국신기록 17회 경신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홍상표가 1974년 전국체육대회 10연패를 달성하며 31세로 은퇴를 했다. 그가 세운 마지막 한국기록은 4m 72였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975년 서울에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라는 국제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한국은 육상경기 기록 향상에 대한 각오가 남달랐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서울운동장에 타탄트랙이 설치되자 이후 트랙 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이 쏟아졌고 특히 박문여고생 김경숙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4월 공인기록회 겸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차 선발전 남자 800m에서 박석관이 1분 51초 F(종전기록 1분 51초 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100m의 이경자는 12초 1로 한국기록에 0.1초 모자란 기록을 세워 기대를 모았다.



1975년 남자 400m에서 연거푸 한국신기록을 새로 쓴 구본철.

5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에서 무려 13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남자 400m에서 구본철은 48초 2(종전기록 48초 5)로 1949년 엄팔용 선수가 세운 한국기록을 26년 만에 0.3초 단축시켰다. 1500m에서는 황규훈이 3분 52초 6(종전기록 3분 52초 7)로 이 분야 1인자인 박석관을 제치고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남자 멀리뛰기의 이평송은 7m 55로 1938년 김원권이 세운 7m 66에 미치지 못했으나, 1950년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서영주가 우승한 7m 54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 처음 채택된 여자 400m 허들에서는 우선숙이 66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여자 3000m에서도 1위를 한 김경숙 9분 51초 7(종전기록 11분 1초 F)을 포함 6위까지가 한국신기록이었다.

남자 10종경기에서는 김병운이 6714점(종전기록 6548점), 여자 5종경기에서는 김순란이 5개 전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3245점(종전기록 3115점)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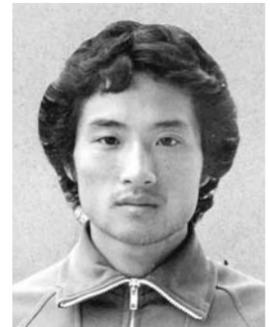
여자 1500m에서도 여중생 김경숙이 4분 32초 4, 여고생 권남순 4분 33초 4(종전기록 4분 35초 8)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400m에서는 박문



한국 최초로 타탄트랙이 설치된 서울운동장. 1975년 5월 30일 준공식에서 구자춘 서울시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주훈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테이프를 끊는 모습.

여고의 김경숙이 56초 60(중전기록 56초 80)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기록도 1966년 제5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명희가 세운 것을 9년 만에 경신한 것이었다. 박문여고의 김경숙은 3주 뒤 열린 제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75년 6월 9일 서울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17개국에서 41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순위에서 일본이 1위, 한국은 4위를 했다. 백옥자는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2관왕이 되었고, 여고생 김경숙은 400m에서 56초 24(중전기록 56초 80)의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4×400m 릴레이에서도 최종주자로 나서 두 선수를 제치며 은메달을 따는 데 기여했다. 사실 김경숙의 여자 400m 금메달은 한국이 국제대회 트랙 경기에서 딴 첫 금메달이었다. 또 여자 400m 허들에서는 우선숙이 1분 2초 89로 금메달을 땀다. 여자 400m 허들은 1974년 로마에서 열린



1975년 남자 30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김환일.

세계육상경기연맹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종목으로, 한국에서 공식 경기를 가진 것은 이 대회가 처음이었다. 여자 3000m에서는 권남순이 9분 46초 8(중전기록 9분 51초 7)의 한국신기록을 은메달을 땀고, 남자 400m에서 구본철은 준결선에서 47초 53, 결선에서 47초 29(중전기록 48초 5)로 연거푸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여자 5종경기의 김순란과 남자 800m의 박석관도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각각 6, 7위에 머물렀다.

6월 28, 29일에 열린 제4회 전국남녀중고육상경기대회 겸 제8회 한일고교교환경기 최종선발전에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200m에서 이경자가 24초 8(중전기록 25초 F),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인천 박문여고팀이 4분 0초 1(중전기록 4분 0초 5)으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 여자 100m에서는 이인숙이 12초 1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7월 제56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예선에서 여자 100m에서 이경자가 12초 F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으나 기대했던 한국신기록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9월 열린 제37회 싱가포르오픈국제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2, 은메달 4, 동메달 8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10월 제3회 KBS배쟁탈육상경기대회 여자 높이뛰기에서 이옥순이 1m 66(중전기록 1m 65)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1월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800m에서 여고생 김경숙이 또

해냈다. 800m를 2분 14초 6으로 주파해 1966년 한명희가 세운 한국기록 21분 14초를 10년 만에 경신한 것. 남자 5000m에서도 황규훈 14분 26초 4, 오태식 14분 29초 4(중전기록 14분 32초 2)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3000m 장애물에서는 김환일이 9분 14초 8로 1970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재형이 세운 한국기록 9분 23초 1을 8초 3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여자 100m 12초의 벽을 넘다

1976년 5월 필리핀오픈육상경기대회 여자 100m에서 이인숙이 12초 3으로 우승했으나 이 기록은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12초 F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로 종합 4위를 했다.

6월 제5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에서 경기여고의 공금순이 예선과 결선에서 11초 9, 11초 8을 잇따라 기록하며 1973년 제1회 마닐라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이인숙이 세운 12초 F를 깨뜨리고 최초로 12초의 벽을 넘은 한국 여자선수가 되었다. 남자 5000m에서는 박원근이 14분 23초 4, 정봉교가 14분 24초 F(중전기록 14분 26초 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멀리뛰기의 이정연 5m 87(중전기록 5m 75), 여자 400m의 김경숙 56초 10(중전기록 56초 24)도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높이뛰기에서는 여고생 신은선이 1m 67로 이옥순이 세운 1m 66를 1cm 경신하는 데 성공했다.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는 72명(임원 22명, 선수 5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참가 종목은 레슬링, 유도, 남녀 배구, 복싱, 사격 등 5개 종목이었다. 반면 육상경기는 기존 기록을 통과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다. 한국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레슬링 자유형에서 양정모의 금메달을 비롯해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올림픽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9월 22일 잠실종합운동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1976년 여자 100m에서 잇따라 11초 9, 11초 8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2초 벽을 넘은 공금순.

이 계획은 1970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한 이후부터 진행돼 왔다. 당시 태국 올림픽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기 직전인 1970년 12월 7일과 대회 도중인 12월 14일 각각 열린 AGF 집행위원회에서 대회 적자 규모가 41만 2000달러라고 보고했다. 한국은 이에 25만 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태국 국민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적자의 절반 이상을 물어줘야 하는 수모를 당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9월 양택식 서울시장을 불러 잠실지구에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라고 지시했다.

양택식에 이어 1974년 9월 서울시장이 된 구자춘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김수근에게 잠실대운동장 기본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일을 은밀히 수행하던 김수근은 7개월 뒤인 1975년 10월 15일 관련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시기를 보고 청와대에서 발표할 테니 그때까지 함구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발표 시점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회 올림픽대회가 결정해 줬다. 대회 마지막 날 레슬링 자유형에서 양정모가 기적처럼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40년 만의 일이었다.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가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그해 9월 22일 잠실종합운동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0만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건립이 결정된 잠실종합운동장.

명 수용 규모의 대운동장과 실내체육관 2개를 포함하는 종합체육시설 건설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1982년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대비해 1977년부터 1981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이미 확보된 잠실 부지에 주경기장과 준비운동장, 야구장, 제1·2 실내 체육관 등을 갖춘 현대식 종합경기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76년 12월 31일 실내체육관이 착공됐고 이듬해 11월 28일 주경기장과 수영 경기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몬트리올 올림픽대회가 끝난 뒤 1976년 9월 싱가포르 오픈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경숙은 여자 800m에서 2분 13초 5(종전기록 2분 13초 6), 400m 55초 7(종전기록 56초 1)로 모두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땀다. 그 밖에 여자 멀리뛰기에서 이정연,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노경렬, 남자 200m에서 오세진이 각각 금메달을 땀고, 남자 400m와 800m 허들에서는 박

석관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땀다. 남자 1만m에서 황신연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국체육대회 최초 육상 5관왕 김경숙

1976년 제57회 전국체육대회가 부산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해외동포 선수단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 2000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역대 체전 가운데 운영이나 기록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꼽혔다. 아무래도 건국 이래 첫 금메달에다 비공식 메달 집계에 따른 종합성적이 19위로 부상한 우리의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성과에 힘입은 바가 컸다.

1976년 10월 제57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5000m에서 박원근 14분 21초 4, 오태식 14분 26초 2(종전기록 14분 26초 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전국체육대회 최고의 스타는 여자 200m, 400m, 800m, 4×100m 릴레이, 4×400m 릴레이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며 전국체육대회 역사상 최초의 육상경기 5관왕이 된 김경숙이었다. 여자 높이뛰기에서도 한국신기록이 2개가 나왔다. 유경희와 신은선이 나란히 1m 68을 넘은 것.

11월 한 해 육상경기를 총결산 하는 제30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3000m 장애물에서 김환일이 9분 14초 6(종전기록 9분 14초 8)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5종경기에는 김순란이 단독으로 참가해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 3245점을 크게 경신한 3290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추가했다.

1977년 5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에서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충주여고 이은자가 1976년 공금순이 세운 11초 8의 기록은 0.1초 단축했고, 유경희는 여자 높이뛰기에서 자신이 세운 1m 68보다 1cm 더 높은 1m 69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자 해머던지기에서는 노경렬이 61m 26으로 13년 만에 임동실이 세운 61m 03을 경신했다.

6월 제1회 대학대항육상경기대회 겸 공인기록회에서 한국신기록 4개가 작성되었다. 여자 800m에서 김경숙은 2분 13초 2(중전기록 2분 13초 5), 남자 해머던지기의 노경렬은 63m 53(중전기록 61m 0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76년부터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며 기록 경신을 거듭해온 여자 높이뛰기에서 신은선이 1m 74, 유경희가 1m 70(중전기록 1m 68)으로 두 선수 모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대회 마지막 날 남자 1만m에서 오태식이 30분 6초 4(중전기록 30분 16초 9)로 한국신기록을 추가했다. 신은선은 9월 열린 제5회 KBS배쟁탈육상경기대회에서 1m 75로 3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8월 제55회 말레이시아오픈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백옥자(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와 이은자(100m, 200m)가 각각 2관왕이 되는 등 금메달 7, 동메달 1개로 종합 2위를 했다.

10월 말에 열린 제31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6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노경렬은 63m 28을 던져 6월에 자신이 세운 63m 5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977년 한국신기록으로 기록되었고, 남자 5000m에서는 정봉교 14분 15초 9, 박원근 14분 16초 F(중전기록 14분 21초 4)로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800m에서 권남순이 2분 12초 F(중전기록 2분 13초 5), 남자 3000m 장애물 김환일 9분 10초 4(중전기록 9분 14초 6), 남자 10종경기 이채홍 6725점(중전기록 6714점)도 한국신기록이었다.

1977년 12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한 해를 결산하며 38개 종목별(남자 22, 여자 16)로 남녀 5걸을 발표했는데 이평송(남자 멀리뛰기 1위), 구본칠(남자 400m 1위), 김순란(여자 멀리뛰기와 5종경기 1위)이 각각 3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1977년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3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월드컵육상경기 아시아 지역대표 선발전은 개최지 선정 실패로 대회가 유산되고 말았다.



◀ 1978년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0m에서 총주여고 3학년인 이은자가 24초 7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경향신문 1978년 5월 23일자 게재 사진.

▶ 1978년 해머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노경렬.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1978년에도 제5, 6회 대회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 제8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다. 개최지였던 파키스탄이 대회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 3위 이내 입상이 가능한 17개 종목에 267명의 선수단을 보냈다.

이 대회에 앞서 1978년 5월 23, 24일 이틀간 열린 제7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아시아경기대회 1차 선발전에서 한국신기록 4개, 한국타이기록 2개, 대회신기록 29개가 쏟아져 나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이은자는 200m에서 24초 7로 중전기록을 0.1초 단축하며 3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100m에서는 11초 3으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당시 아시아기록은 100m 11초 6, 200m 23초 7로 이은자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제 컨디션만 유지해준다면 메달 획득이 가능했다. 한편 여자 멀리뛰기에서는 이정연이 5m 90으로 자신이 세운 중전기록에서 3cm를 초과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자 멀리뛰기에서는 이평송이 7m 71로 마의 벽이라고 했던 7m대를 넘어서며(중전기록 7m 66, 1940년 극동올림픽대회 파견 도쿄 선발전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동메달을 딴 서말구(맨 오른쪽)의 역주 장면. 그는 이듬해 멕시코시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10초 34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에서 김원권이 작성)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200m에 도전한 오세진(한전)은 21초 3으로 한국타이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10종경기에서는 이채홍(영남대)이 6729점(종전기록 6725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78년 6월 24, 25일 이틀간 열린 최종 선발전에서도 한국신기록 5개와 한국타이기록 2개가 작성되었다. 첫날 높이뛰기에서 신은선이 1m 75로 종전기록을 1cm 초과하며 한국신기록, 4×100m 릴레이에서 여자국가대표팀이 47초 4(종전기록 49초 13)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남자국가대표팀은 41초 4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둘째 날에는 1만m에서 최경렬과 박원근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최경렬이 30분 4초 6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1위를 했는데, 2위 박원근의 기록 30분 5초 5도 한국신기록이었다. 종전기록은 오태석이 세운

30분 6초 4였다. 여자 멀리뛰기에서는 이정연이 1차 선발전에 이어 또다시 5m 90을 기록했고, 여자 5종경기의 김순란은 3621점으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3585점을 36점 경신했다.

이어 7월 28일 제56회 말레이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종합 1위를 했다. 1위 기록을 보면 해머던지기 노경렬 50m 50(자신의 최고기록 63m 54), 5000m 정봉교 15분 16초 F, 높이뛰기 심재화 2m 01, 여자 포환던지기 백옥자 14m 35(한국최고기록 16m 95), 원반던지기 백옥자 44m 76, 200m 모명희 26초 등이다. 모명희는 1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고, 황규훈은 1500m에서 은메달을 땀다.

9월에는 싱가포르 국제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려, 해머던지기에서 노경렬이 56m 52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김태근이 52m 42로 동메달을 땀다. 남자 1만m에서 최경렬이 32분 9초 1, 여자 800m에서 김순화가 2분 10초 9로 각각 동메달을 땀다.

9월 26, 27일에 열린 우수선수 공인기록회 및 제7회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 여자 5종경기의 독보적인 존재인 김순란이 3734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한국타이기록 2개가 나왔다. 여자 400m에서 정봉순과 유희숙은 55초 7로 나란히 들어와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1978년 10월 6일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인 육상우수선수기록회에서도 한국신기록 1개와 한국타이기록 2개가 수립되었다. 한국신기록의 주인공은 해머던지기의 노경렬. 그는 63m 88을 던져 종전기록을 34cm나 초과하며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한국의 대표적 스프린터'로 불리던 서말구(동아대)는 100m 10초 5로 1위를 했고, 200m에서는 21초 3의 한국타이기록(1974년 오세진이 세운 기록)을 세웠다. 여자 400m에서는 유희숙이 55초 7로 한국타이기록(1976년 김경숙이 세운 기록)을 세우며 국가대표인 김경숙을 2위로 밀어냈다.



▲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200m에서 은메달을 딴 이은자.
▼ 1978년 방콕 대회 메달리스트인 이은자(왼쪽)와 서말구(가운데).

10월 28일 열린 제32회 전국남녀종합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한해 육상경기 시즌을 마무리짓는 대회이자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마지막 점검 대회이기도 했다. 여자 5종경기에서 김순란이 3911점으로 생애 통산 10번째 한국신기록이자 아시아신기록을 세웠고, 유희숙이 200m에서 24초 7로 한국타이기록(중전기록 이은자)을 마크하며 마지막으로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선수단에 합류했다.

1978년은 육상경기 각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이 쏟아져 나와 그해 12월에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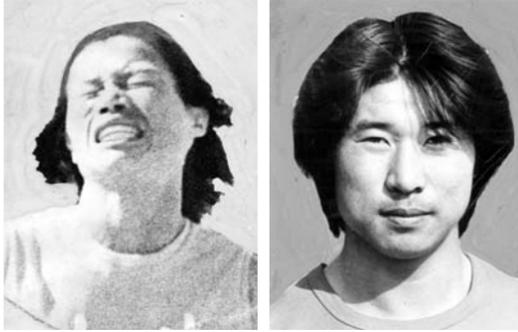
1970년 중후반 여자 5종경기에서 독보적 존재였던 김순란.

제8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에서 한국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다소 아쉬운 성적에 그쳐 종합 3위를 했다. 이은자가 여자 200m에서 24초 99로 은메달을 획득해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단거리에서 처음으로 입상하는 수훈을 세웠다. 남자 100m에서는 서말구가 10초 66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용기는 높이뛰기에서 2m 16을 넘어 한국신기록을 세웠지만 4위에 그쳐 아깝게 메달을 놓치고 말았다.

한편 전국체육대회의 지방 순회 개최에 따른 체육 인프라 확충 효과는 계속 이어졌다. 인천은 1978년 제59회 대회를 계기로 전용 경기장을 건립했으며, 대전 역시 1979년 제60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3만 5000명을 수용하는 메인스타디움과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 세웠다. 특히 1980년 제61회 전국체육대회는 전주, 군산, 이리(익산) 등에서 열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전주에는 3만여 명을 수용하는 공설운동장이 건설됐고 군산에도 공설운동장이 세워졌다.

한국 최고의 스프린터 서말구 200m 한국신기록

1979년 한 해 동안 육상경기에서 풍성한 기록 잔치가 벌어졌다. 1979년 4월 아



◀ 1979년 여자 8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정봉순.
▶ 1979년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15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운 홍순모.

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전에서 5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1만m에서 박원근이 29분 38초 6을 기록했는데 종전기록(최경렬 30분 4초 6)을 26초나 앞당겼을 뿐 아니라 한국 최초로 30분 벽을 깬 것이어서 의미가 컸다. 여자 200m에서는 모명희(24초 3)와 유희숙(24초 5)이 치열한 경쟁 끝에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800m에서 정봉순이 2분 8초 4로 1978년 싱가포르 오픈육상경기대회에서 김순화가 세운 2분 10초 9의 한국기록을 2초 5 단축했다. 남자 10종경기에서는 이채홍이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기록에 98점을 더한 6823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어 열린 제8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200m에서 서말구는 21초 1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해 1978년 10월 자신이 세운 한국타이기록(1974년 오세진이 세운 21초 3)을 0.2초 단축했다.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홍순모가 48m 96으로 15년 만에 김병기의 기록보다 52cm나 더 멀리 던졌고, 남자 800m에서는 이안구가 1분 50초로 4년 만에 박석관이 세운 1분 51초 기록을 깨뜨렸다. 남자 110m 허들에서 김만호가 14초 7로 6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1979년 한국 육상경기계 최고의 스타는 스프린터 서말구였다. 남자 100m에서 두 차례 한국타이기록(10초 3)을 세웠고, 몬트리올 월드컵육상경기대

회 아시아지역 대표 선발전에서 10초 F(수동계시)로 비록 비공인 기록이었지만 1966년 정기선이 세운 한국기록 10초 3을 0.3초 단축하며 이듬해 열리는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또 9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 100m에서 10초 34를 기록했고, 200m에서는 20초 91로 종전 자신의 기록 21초 30을 깨뜨리며 다시 한 번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그해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인근 회장의 주선으로 기업인들이 주축이 된 '서말구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여자 중장거리 종목에서는 김순화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순화는 10월 타이페이에서 열린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 여자 800m에서 2분 9초 4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데 이어, 11월 도쿄에서 열린 전일본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500m에서 4분 31초 8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다.

1979년 11월 문교부는 육상경기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경기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 대학에 육상경기부를 설치하고, 특기자에 대한 대학 신입생 모집 확대, 신기록 수립자와 릴레이 입상자 및 역전마라톤 구간 1위자에 대한 특기자 인정, 육상경기 국가대표 선수 증원, 소년체전에 육상경기 종목 추가, 육상경기 부문 전국규모 대회 3회 출전 제한 철폐 등 15개 항목에 달하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었다. 또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982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0개 획득을 목표로 남자 17~18세, 여자 14~15세의 유망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의 육상경기진흥 6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79년 아시아아마추어육상경기연맹은 한국인 이주훈 씨를 종신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김창근 씨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